

강혜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호가사 <면앙정가> 교육 방안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조 아 라

강호가사 <면앙정가> 교육 방안 연구

강혜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조 아 라

논문 개요

이 논문은 현행 학교 가사 문학 교육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기행 가사 다음으로 교과서에 많이 실린 ‘강호가사’ <면앙정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강호가사’는 ‘강호시조’와 함께 조선 시대 문인들의 ‘자연관’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강호가사’를 이용하여 자연에 대한 의미를 학습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문학 작품이 된다.

다양한 ‘강호가사’ 작품 중 <면앙정가>를 본고의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여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았다.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의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관점과 문학 교육의 주안점을 토대로 ‘작품론적 측면’, ‘문화론적 측면’, ‘태도론적 측면’의 세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 활동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시는 언어의 아름다운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장르이므로 작품에 드러난 언어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작품론적 측면’을 다루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텍스트 언어와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리듬·율격과 같은 음악적인 요소, 묘사·비유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이해하는 학습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대 문학과 달리 고전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생애나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사회적 상황, 작품과 관련되어 사회에 만연해 있던 문화 등을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면앙정가>는 화자의 자연예찬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데, 이러한 자연관도 이 시대 문화의 일부였다. 따라서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자연관도 포함하여 ‘문화론적 측면’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태도론적 측면’은 <면앙정가>를 토대로 한 학습자의 자연관 내면화 형성에 주안을 두었다. 고전 작품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화를 꾀하는 경우 현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하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자연’을 시 속에서 찾아 <면앙정가>와 비교하는 학습을 기초로 하였다. 그래서 1930년대의 시로 신석정의 <어머니,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를, 1960년대의 시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비교 텍스트로 선정하여 <면앙정가> 속의 자연과 공통점·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1930년대는 자연이 이상향으로서만 존재하고, 1960년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파괴되는 공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면앙정가>와는 다른 의미가 시대별로 이어졌다. 이처럼 <면앙정가>의 자연이 1930년대와 1960년대의 자연 공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유토피아의 세계, 이상적 공간으로 인간의 순수성을 찾을 수 있는 자연으로 이어져오기도 한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학 특성이 끊어지지 않고 시대를 따라 약간의 변형이 보이지만 소설이나 시 등의 문학 작품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요즘 일어나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생활을 다룬 자료를 이용하여 자연 속에서의 삶의 방식을 토의·토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활동에서 얻은 여러 지식을 소화하여 자기만의 자연관을 써 보는 창작 활동으로 전이시켜 강호가사 <면앙정가>에 대한 학습을 끝낼 수 있다.

이 세 측면의 활동을 통해서 <면앙정가>의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고, <면앙정가>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그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 후,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문학 교육이 이루려는 목표를 <면앙정가> 수업을 통해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설정	1
2. 선행연구 검토	3
II.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의와 교육 양상	7
1.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의	7
2. 강호가사의 교육 양상	15
1) 면양정가	15
2) 상춘곡	19
3) 누항사	24
III. <면양정가> 교수-학습의 실제	28
1. 작품론적 측면	28
1) <면양정가> 텍스트 언어 의미 이해하기	29
2) <면양정가>의 음악성 이해와 감상하기	34
3) <면양정가>의 형상성 이해와 감상하기	43
2. 문화론적 측면	55
1) <면양정가>의 생성배경 이해하기	56
2) <면양정가>의 자연관 이해하기	65
3) 16·17세기 누정문화를 통한 <면양정가> 이해와 감상하기	79
3. 태도론적 측면	90
1)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면양정가> 이해와 감상하기	92
2) 학습자의 자연관 내면화 활동하기	105
IV. 결론	115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설정

고전 문학교육은 당대의 의미를 이해하여 현재적 의미로 바꾸어 실용화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교육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고전 문학작품을 현재적 의미로 바꾸는 작업은 고사하고 당대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부족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고전 장르 중 ‘강호가사’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고 교육방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을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학 이론 연구’의 방향이 아닌 문학 이론을 기저로 하여 효과적인 교육적 전달 방법을 알아보는 데 논의의 핵심이 있겠다.

가사는 기행가사, 유배가사, 불교가사, 여성가사 등의 하위 장르가 있는데, 그 중 고전시가에서는 삼강오륜과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제재로,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강호가사가 문학 교과서에서 자주 보인다. 가사는 고려 말부터 시작 된 시가 장르로서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향유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계층이 향유층으로 참여하였다. 향유층의 확대는 가사의 개방적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가사의 형태는 4음보격의 무제한 율문이라는 형식적 특징 이외에는 다른 제약을 찾을 수 없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와 향유층을 지닐 수 있는 장르인 것이다. 그러나 형식의 개방성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런 학계의 현상은 국어 교육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 정

철의 <관동별곡> 한 편만이 고등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어 교과서 수록 여부에 따라 ‘기행가사’는 그 교육적 연구량이 많으나 그 이외의 가사는 교육적 연구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 다룬 ‘강호가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기행가사’ 논문과 비교하였을 때나 ‘강호가사’ 자체를 연구한 논문과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양이다. 그리고 ‘강호가사 교육’에 대한 내용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적용 방법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특히 교육 방향에 있어서 ‘강호가사’의 공시적 비교를 통해 전·후기의 특징을 학습시키는 것이나 가사 자체의 특징, 작품의 특징을 학습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학습자의 내면화를 위해 자연에 대한 글쓰기를 시키지만 그 정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미약한 상태로 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그 글쓰기는 작품의 감상평 정도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본고에서는 ‘강호가사’의 공시적·통시적 비교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 내용의 하나로 잡았다.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향유하는 삶은 생태와 환경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 일만 남은 현대에 그 악영향을 피하여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까지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강호가사’를 통해 ‘고전시가의 아름다움’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연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교육적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강호가사’를 통한 ‘자연’의 내면화 교수-학습을 또 다른 연구 내용의 하나로 잡았다.

이런 문제를 아울러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교육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강호가사’ 연구 세 측면의 체계를 잡았다. 첫째,

국어 교과서의 핵심인 다양한 언어적 체험을 바탕으로 언어 능력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관점을 ‘작품론적 측면’으로 보고, 둘째, 민족 문화 이해와 계승·창달을 달성한다는 관점을 ‘문화론적 측면’으로 보았다. 셋째,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태도론적 측면’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등학교 국어교육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관점을 통해 ‘작품론적 측면’, ‘문화론적 측면’, ‘태도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강호가사’의 학습 요소와 방법을 알아보고, 특히 연구가 미미한 ‘문화론적 측면’과 ‘태도론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새로운 교육 방안을 연구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강호가사’ 교육 연구는 ‘문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강호가사 교육연구는 강호가사 자체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많은 양도 아니고, 교육과 관련되어 확장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논문들을 뽑아 그 연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한귀은¹⁾은 고전시가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하기 전, 교육담론과 학술담론이 연계되어 상호담론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둘의 대화로 서로를 변용시켜 나감으로써, 문학텍스트에 대해 메타상호텍스트적 담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을 고전시가에 적용시켜 현대시와의 상호텍스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제망매가를 박목월의 <이별가>,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서정주의 <귀족도>, 박목월의 <화관>

1) 한귀은, 「고전시가교육의 상호텍스트적 네트워크」, 『어문교육논집 제 16집』,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98.9.

정지용의 <유리창 1>과 같은 현대시와 비교 읽기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탈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고전문학교육이 작품 해석이 나 ‘고전’끼리의 비교로 끝냈던 연구에서 벗어나 현대시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였다.

한창훈²⁾은 <상춘곡>을 중심으로 고전시가의 방향을 잡아보았다. 우선 그는 고전시가 교육론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였는데, 고전시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학습자들이 느끼고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전자의 방향으로 <상춘곡>을 왜, 어떻게 가르칠지 논의하였고, 후자의 방향으로 <상춘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특히 <상춘곡>에서 ‘생태적 사유’를 찾아내어 교육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전시가의 현대적 의미를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깊다. 그러나 연구자가 스스로 밝혔듯이 그 구체적 방법을 소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앞으로 ‘강호가사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몫이 될 것이고 본고도 이 한계를 인식하고, 그 방향의 일면을 제공해 보려 하였다.

고광수³⁾는 고전문학 교육의 한 방향으로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미를 찾았다. 그는 고전문학 교육의 가치를 ‘예술론적 관점’, ‘문화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으로 보아 세 관점의 조화가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의 진술 방식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를 넘어서 작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 작가의 심리적 움직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강호가

2)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론 서설- <상춘곡> 교육을 예로 하여」, 『백록어문 제15집』, 백록어문학회, 1999.2

3) 고광수, 「고전문학 교육의 한 방향-강호가사의 교육적 의미」, 『문학교육학 제10호』, 역락, 2002.12

사의 진술 방식을 크게 독백체와 대화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독백체 진술 방식인 <면앙정가>를 화자의 갈등이 없으므로, 대화체 진술 방식인 <성산별곡>을 화자의 갈등이 있으므로 보았다. 작품에 드러난 문화론적 관점을 표현론적 관점과 연결지어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였다.

김풍기⁴⁾는 자연시가류 중 이현보의 <어부가>, 퇴계와 율곡의 <도산십이곡>, <고산구곡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세 작품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황과 사상을 작품에 반영하여 작품을 해석하였다. 이렇게 작자와 시대, 환경이 다른 작품들이 다같이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작자와 시대, 환경이 다르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가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학습목표가 제시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 방법의 연구보다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교육 내용의 연구가 중심이었다.

허남춘⁵⁾은 근대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하여 민족적인 가치를 비하했던 시대를 비판하였다. 우리 문화에 서양의 문화적 잣대를 대는 과오를 돌아보고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비롯된 편견을 받아들였던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서구적 근대성을 극복하고 서구의 문예미학 이론과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전시가 교육을 위하여 고전문학의 역사 흐름에 따른 담당층의 세계관과 미의식을 중심으로 시대별 문학의 특징을 나누어보았다. 그리고 고대시가론, 향가론, 속요론, 시조·가사론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해서 아쉽다.

4) 김풍기, 「자연시가류의 역사적 층위와 학습목표의 설정」,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역사적 지평』, 월인, 2002.

5) 허남춘,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과제」, 『백록어문 제17집』, 백록어문학회, 2001.2

이상으로 고전시가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고전시가 교육이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론이 중요하기는 하나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이 될 만한 예가 없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본 연구는 학습 활동을 짚보았다. 본고는 이 연구들 중, 한귀은의 현대시와의 상호텍스트 교육과 한창훈의 강호 가사를 통한 생태문학 교육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하여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Ⅱ.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의와 교육 양상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의는 고전문학 교육의 의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 고등학교 국어 교육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관점과 연관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강호시조’인 <어부사시사>를 통해 ‘강호시조’와는 다른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후 18종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강호가사’ <상춘곡>, <면앙정가>, <누항사>의 교육양상을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고,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해 본다.

1. 강호가사의 교육적 의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중 국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국어 상·하』이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는 다양한 시대별·장르별 작품이 실려야 하기 때문에 작품 수가 많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문학이라는 과목이 조금은 해소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국어와 독서, 국어와 화법, 국어와 작문, 국어와 문법, 국어와 생활 국어의 내용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것처럼 국어와 문학과의 내용 연계가 잘 이루어져있지 않고, 문학 과목은 국어처럼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있다.

6) 문학 과목은 기본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인식되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의지가 미흡한 데다가, 문학 과목의 시수에 비해 너무나 방대한 분량 때문

문학 과목에 실린 작품들도 국어 과목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내용이 짜여져야 한다. 그러나 본고의 대상 장르인 ‘강호가사’는 국어 교과서에 한 편도 실려 있지 않고, 몇몇 문학 교과서에 본문으로 혹은 학습 활동 중 예문으로 실려있다. 대신 ‘강호시조’로서 <어부사시사>가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강호’를 제재로 했다는 점에서 <어부사시사>의 교육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내용	
6.노래의 아름다움 (2)어부사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 ‘어부사시사’의 형태적 특징 ‘어부사시사’의 내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부사시사’와 평시조와의 차이점 파악하기 작품 속 화자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타인의 발표 내용을 메모하며 듣기

「국어 上」에 수록된 ‘어부사시사’는 ‘노래의 아름다움’을 학습하는 단원에 실려 있다. 학습 목표에서 보듯이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의 속성을 중심으로 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들을 <어부사시사>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학습 활동 내용들도 어부사시사의 작품 이해에서 더 나아가 정도가 ‘타인의 발표 내용을 메모하며 듣기’이다. 이 작품과 관련된 문화 교육이나, 학습자의 내면화 교육이 없는데 <어부사시사>와 관련된 다양

에 작품을 읽고 설명해주는 수준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 활동 부분도 교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등, 아무래도 기본 교과인 국어보다는 소홀한 면이 많다. 따라서 문학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 교육 확장이 필요하다.

<어부사시사>는 강호의 생활이 잘 표현된 작품이나 자연 대상을 서술하는 관점에 있어서 ‘강호가사’와 차이가 나 학습자에게 자연관을 형성시키는 데는 ‘강호가사’쪽이 효과적이다.

이 차이에 관한 설명은 최상은⁷⁾이 갈래의 특성과 결부지어 논의하였다. 그는 사대부층의 비평문을 분석한 데서 그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사대부들의 자연인식에 대한 관점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가사와 시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비평문 기록⁸⁾을 사용하였다.

(가) 關東別曲 松江所製 歷舉關東山水之美 說盡幽遐詭怪之觀⁹⁾

(관동별곡 송강소제 역거관동산수지미 설진유하궤괴지관)

(나) 關西別曲 …歷遍江山之美…關西佳麗寫出於一詞¹⁰⁾

(관서별곡 …역편강산지미…관서가려사출어일사)

(다) 俛仰亭歌 則鋪敘山川野幽 曠闊之狀 亭臺蹈徑高低回曲之形 四時朝暮之景無不備錄¹¹⁾

(면양정가 척포서산천야유 황활지장 정대도경고저회곡지형 사시조 모지경무불비록)

(라) 關東歌曲 最清新樂府 流傳五十春 文采風流今寂莫¹²⁾

(관동가곡 최청신락부 유전오십춘 문채풍유금적막)

(마)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歌興聽者 不能無交有¹³⁾

7) 최상은, 「면양정 송순 시가의 미의식」, 『성대문학 28』, 1992.2.

8) 최상은 위의 책에서 재인용.

9) 洪萬宗, 「旬五志」, 『洪萬宗全集 上』, 태학사, 1980, 93쪽.

10) 위의 책, 같은 곳.

11) 沈守慶, 「遣閑雜錄」, 『국역 대동야승』 III, 민족문화추진회, 1984, 133쪽.

12) 金尙憲, 「贈關東按使尹仲素嚴之」, 『송강전집』,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64, 298쪽.

(서기가이탕척비인 감발윙통 가홍청자 불능무교유)

(바) 不無令戚之感 而猶喜其舊遊陳跡之依然 又作此歌¹⁴⁾

(불무령멸지감 이유희기구유진적지의연 우작차가)

(사) 謹效其體 足成前後六曲 一以寄其愛君憂國之誠 一以發聖賢學問之
正¹⁵⁾

(근효기체 족성전후육곡 일이기기애군우국지성 일이발성현학문지
정)

(가)~(라)는 ‘관동별곡, 관서별곡, 면양정가, 관동가곡’의 가사에 관한 글
이고, (마)~(사)는 시조에 관한 글이다.

(가)는 〈관동별곡〉이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歷舉(역거)하고 그 그윽하고
도 기이한 풍경을 남김없이 표현했다고 했다. (나)는 백광홍의 〈관동별곡〉이
강산의 아름다움과 관서의 빼어난 경치를 이 한 작품에 두루 표현해 놓았다
고 했다. (다)는 〈면양정가〉가 산천·전야의 그윽하고 광활한 형상을 서술하
였으며, 정자와 길의 높고 낮음과 꼬불꼬불한 모습, 사시와 아침·저녁의 경치
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라)는 〈관동별곡〉이 매우 청신하며 그
악부가 오랜 동안 전해오는데 그 문체·풍류가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다고 하면
서 〈관동별곡〉의 문체와 풍류가 사라짐을 애석해 했다. (마)는 〈도산십이
곡〉을 부르면 鄙吝(비인)함을 깨끗이 씻어 주고 感發融通(감발윙통)하게 하여
노래하고 듣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바)는 농암
의 <어부가>에 대한 설명으로, 그가 오랜 벼슬살이 끝에 고향에 돌아와서 산

13) 李滉, 「陶山十二曲跋」, 『退溪全書』상, 卷四十三 跋,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58, 973쪽.

14) 李賢輔, 「聲巖先生文集」三, 『李朝明賢集』三,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73, 50쪽.

15) 張經世, 「江湖戀君歌跋」, 『沙村先生文集 1』, 한국문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1993.

천을 둘러보고 위의를 느끼고 옛날에 놀던 곳들도 변함없음이 기뻐 이 노래를 지었다고 했다. (사)는 퇴계의 〈陶山十二曲〉을 본받아서 장경세가 〈江湖戀君歌〉 前後 六曲씩을 지었는데, 하나는 愛君憂國의 성심을 의탁하여 노래하였고, 다른 하나는 성현 학문의 正道를 노래했다고 한다.

(가)~(사)에서 가사와 시조의 미의식을 도출할 만한 용어를 골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가)	山水		
(나)	江山		
(다)	山川田野		
(라)		風流	
(마)			蕩滌鄙吝, 感發融通
(바)			令威之感, 陳跡之依然
(사)			愛君憂國之誠, 聖賢學問之正

(가)~(다)가 (라)~(사)보다 ‘자연’을 미의식 표출의 제재로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는 (ㄴ)을 중요시했는데,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얻은 흥취를 말한다. (라)에만 풍류라는 말이 쓰였지만, 〈면앙정가〉의 경우 “遊賞之樂(유상지락), 浩然之趣(호연지취)”가 나타나 있다든가, <강촌별곡>은 “江山之趣(강산지취), 閑居之興(한거지흥)”을 나타냈다는 말에서 樂·趣·興 등 흥취를 의미하는 어휘들이 광범위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ㄷ)은 대체로 관념적인 성리학적 규범의 단어들인 쓰였다. (마)는 작품의 효용적 측면을, (바)는 창작동기를, (사)는 주제를 말한 것이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가사인 (가)~(라)는 대상과 흥취를 중요시하는 시로 볼 수 있고, 시조인 (마)~(사)는 성리학적 규범을 중요시하는 시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은 가사와 시조의 형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조는 분연체가 가능하나, 한 연이 초·중·종장으로 하나의 시상이 끝나야 하는 폐쇄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각 연의 종장이 “이 몸이 ~희움도 亦君恩이샀다”로 끝나고 있다. 이런 점은 임금의 은혜를 강조하여 향유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훈적’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당하다. 이에 비해 가사는 길이의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시조보다 자유로운 시상 전개가 가능하여 묘사와 서술 방식이 많다. 이런 형식적 차이를 통해 가사가 시조보다 ‘정서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당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가사에 성리학적 규범이 전혀 없고, 시조에 흥취가 전혀 없는 식은 아니다. ‘성리학적 규범’과 ‘흥취’는 두 갈래에 모두 영향을 주었으나, 형태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두 지향성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가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갈래상의 특징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면화하기에는 화자의 정서가 자유롭게 드러난 ‘가사’가 더 적절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호가사’를 대상으로 먼저 그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강호가사’의 교육적 가치는 고등학교 국어교육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관점¹⁶⁾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은 (1)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 (2) 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도모하는 교육, (3)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 압축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국어교육은 다른 교과와는 달리 언어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데 그 특질이 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읽히고,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쓰게 하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上』, 교육인적자원부, 2001, 8쪽.

고, 이것을 음성 언어로 실현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지혜를 넓혀 간다. 사람은 왜 사는 것인지, 인간이 귀중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웃과 인류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넘겨주어야 할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언어를 통해 익히고 또 생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언어 능력의 발전이 곧 개인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모든 학생은 향토 또는 민족과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존재로 간주하고 그러한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게 된다. 학교 교육은 이런 감상 능력에서 창작에까지 이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훌륭한 문학 작품을 스스로 읽고, 감동하게 되면 저절로 외계 되는 것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낡은 방식이라고 해 버리는 암송, 모방, 변형 등이 실제로 문화 계승·창달의 목표를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미래 지향적 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쏟아지는 미디어 속에서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문화적 관점을 중시하여 삶의 질서와 관습을 아는 능력, 통일 시대에 일어날 문화적 정체성의 최소화를 위해 국어 교육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국어 교육의 바람직한 관점은 문학 교육의 주안점과도 관련 있다. 첫째, ‘문학’ 과목 교육 과정은 문학의 본질을 ‘국어 문화의 한 분야인 언어 예술’로 보았다. 둘째, 문학 능력의 신장이다. 문학 능력이란 학습자가 문학 현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셋째, 문학 문화 발전을 위해 문학 경험이 기저가 된다. 그리고 독자 중심 접근 방식과 문학을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매체 및 활동과 통합된 포괄적 문화 현상으로 보도록 하였다.¹⁷⁾

이러한 관점과 관련한 강호시가의 교육적 가치는 ‘작품론적 측면’과 ‘문화

17)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2001, 301~302쪽.

론적 측면’, ‘태도론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가’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텍스트의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것과 같다. 즉, ‘시가’는 작품에 쓰인 언어의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을 학습함으로써 율격, 의미, 주제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언어교육’을 ‘작품론적 측면’의 교육이라고 넓은 범위로 분류한다. 그리고 ‘문화론적 측면’의 교육은 작품이 생성될 시대나 작자와 사상, 작품과 관련된 누정 문화 등을 학습하여 조선 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도론적 측면’의 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이 특징적이다. 학습자들에게 내면화 경험을 시키고 현재적으로 변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교육으로서 <면양정가>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자연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형성을 중심 내용으로 정하였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현대 문학과와 상호텍스트 비교를 통해 강호가사 <면양정가>의 계승과 수용 면에서 학습자의 태도를 형성하고 글쓰기, 토의하기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으로 ‘작품론적 측면’과 관련하여 시가에 쓰인 어휘 이해학습, 시어의 음악성·형상성의 학습에 초점을 두었고, ‘문화론적 측면’에서는 작품 창작 시대와 작가, 관련 문화 학습에 초점을 두겠다. 마지막 ‘태도론적 측면’에서는 상호 텍스트를 통한 비교와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자연관’ 내면화 학습에 초점을 둘 것이다.

우선, 현행 문학 교과서를 통해 ‘강호가사’의 교육 내용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작품론적 측면’, ‘문화론적 측면’, ‘태도론적 측면’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강호가사의 교육 양상

‘강호가사’ 작품은 국어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7차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호가사’의 범주에 드는 작품을 추출하여 보면 <면앙정가>, <상춘곡>, <누항사> 세 작품이 있다. 이 작품들의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 내용이 잘 연결되어있는지, 그리고 학습내용을 ‘작품론적·문화론적·태도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겠다.

1) 면앙정가

- 교학사 下 · 케이스 하 · 민중서림 하

단원명	I. 문학과 문화 1. 문학 문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국어 문화와 문학 문화
학습목표	· 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수용, 창작한다
학습 활동 내용	<p><내용 이해></p> <p>1.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 중 <u>순수 우리말 표현이 두드러진 부분을</u> 찾아보고, <u>국어 표현의 묘미</u>에 대해 말해 보자. - 작품론적 측면</p> <p>2.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인생관을 정리하여 말해 보자. - 문화론적 측면</p> <p><원리·확장> 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다음 노래말에 담긴 문학적 표현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자. (WAX의 ‘오빠’) -문화론적 측면</p> <p><발표·토의·토론> 현대 가요 중에서 우리말 표현이 아름다운 가사를 찾아보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 -문화론적 측면</p>

단원명	V.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흐름 3. 한글 창제와 국문문학의 발달
학습목표	· 한글 창제와 한국문학의 발전 관계를 이해한다. · 조선 전기 문학의 갈래와 그 양상을 이해한다.
학습 활동 내용	<p>〈깊이 보기〉 중</p> <p>2. (가)와 (나)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문화론적 측면 (가) 고산구곡가(이이) (나) 면앙정가</p> <p>(1) 이 작품들에 나타난 시적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p> <p>(2)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과 중국 문학의 보편적 특성을 토론해 보자.</p>

단원명	I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4. 고려 후기~조선 전기의 문학
학습목표	· 조선 전기 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
학습 활동 내용	<p>〈단원의 길잡이〉 내용 중, ‘맛보기 3’으로 정극인의 ‘상춘곡’이 제시됨. -문화론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보기 1. ‘홍진’과 ‘산림’의 두 배경이 어떤 면에서 대립되는지 말해 보자. • 맛보기 2. ‘풍월 주인’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를 말해 보자. <p>단원 전체의 마무리인 〈다지기〉 중</p> <p>1. 아래 두 작품에 나타난 ※자연관을 비교하여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작품론적 측면·문화론적 측면 (가) 농암가(이현보) (나) 면앙정가</p> <p>(1) (가)에서 ‘인사’와 ‘산천’을 대비시킨 이유를 말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대비로 인해 나타나는 작품의 주제에 대해 토의해</p>

	보자. (2) (나)에서 느껴지는 작품의 분위기에 대해 말해 보자. 그리고 <u>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물을 모두 찾고, 그것들에 대해 시적 화자가 보이는 태도를 말해 보자.</u> (3)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를 중심으로 (가), (나)에서 <u>화자가 자연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u>
--	---

「교학사 下」에서는 〈면양정가〉를 국어 문화 교육과 연관지어 선정하였다. 〈내용이해〉에서는 순수 우리말 표현을 작품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고, 〈원리·확장〉에서는 현대 노래말에 담긴 문학적 표현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하였고, 〈발표·토의·토론〉에서는 현대 가요 중에서 우리말 표현이 아름다운 가사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고전가사는 대체로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 현대가사도 4음보의 율격이 자주 보이고 있다는 상황에서 서로 비교하여 표현 교육을 해 보는 것은 좋은 취지이다.

그러나 <원리·확장>에서 현대에 인기 있는 가사의 표현 원리를 찾아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각자 비판을 하도록 하는 학습이 <면양정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발표·토의·토론>에서도 ‘우리말 표현이 아름다운 현대 가요의 가사를 찾으라’는 식의 활동은 막막함을 안겨주기만 한다. 본문의 작품이 〈면양정가〉이고, 〈면양정가〉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가사라면, 현대 가요에서 우리말 표현이 아름답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사를 제시해주고, 더 찾아보아 각자의 느낌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고전가사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현대적 계승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양희은의 ‘가을 아침’¹⁸⁾이 그

18)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쳐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음-/ 눈 비비며 뺨뺨이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오 아이들은 재잘대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음-/ (...중략...)

예로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양희은의 ‘가을 아침’은 4음보의 율격을 잘 지키고 있는 가사이고, 박인수·이동원의 ‘향수’는 자연을 잘 묘사하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이다.

「케이스 下」에서는 한글 창제와 국문문학의 발달이라는 소재목 아래 본문의 내용이 아닌 활동 중 하나의 소재로 <면앙정가>를 선정하였다. 조선전기 문학의 양상인 ‘강호가도’를 시조와 가사를 통해 시적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 문학과 중국 문학의 보편적 특성을 토론해 보는 것은 <깊이보기>의 일부라 심화 학습에 해당하나 자료 제시 없이 중국 문학과 비교하는 토론은 심화 학습이라도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합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중서림 下」에서는 ‘조선 전기 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라는 목표 아래 「상춘곡」과 「면앙정가」의 시적화자가 자연을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를 학습한다. 시적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알아보는 학습은 기본적인 학습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가 내면화 할 활동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 ‘단원 평가 문제’와 비슷하다는 느낌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이 없어서 일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면앙정가>는 ‘작품론적 측면’과 ‘문화론적 측면’의 학습 활동이 많다. 학습 활동들은 작품 자체의 가치인 ‘아름다운 언어 표현’과 ‘송순의 호탕한 자연관’에 잘 맞추어진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도 표현상으로도 연관이 많지 않은 현대 가요의 가사와 비교한다든지, 학습 활동 방법이 이야기하기 정도로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부분적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 구름 좇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쳐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음-. (양희은 ‘가을아침’ 中)

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런 활동은 <면앙정가>의 내면화와 연관된 ‘태도론적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교육 내용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런 부분을 교사에게 맡기는 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것이 문학 교과서에 실린 <면앙정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2) 상춘곡

- 상문 하 · 천재 상 · 금성 하

<p>단원명</p>	<p>V. 문학과 삶 1. 개인의 삶과 문학 (3) 삶과 자연</p>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이 삶의 표현임을 이해한다. ·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 자신의 삶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p>학습 활동 내용</p>	<p><확인 활동> -작품론적 측면</p> <p>1.(1) <상춘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 자리에 알맞은 구절을 찾아 채워 보자.</p> <p>(2) 다음 작품에 표시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구절을 <상춘곡>에서 찾아보자.</p> <p><학습 활동> -문화론적 측면·태도론적 측면</p> <p>-개별활동 2. 시적 화자는 자연을 현실과 대립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비판해 보자.</p> <p>-모둠활동 3. 시적 화자는 ‘무릉도원’을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설정은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것이다. 자신만의 개성적인 이상향을 묘사한 후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p>

<p>단원명</p>	<p>II. 시의 수용과 창작 2. 시의 심상과 비유 (2) 상춘곡</p>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심상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시에서 비유의 종류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심상과 비유가 쓰인 다양한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에 적용할 수 있다.
<p>학습활동 내용</p>	<p><내용 학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작품에서 작자가 ‘봄’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여기에 쓰인 표현 기법의 종류를 알아보자. -작품론적 측면 2. 이 작품은 화자가 대상에서 느끼는 정감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 시상(詩想)을 내용 단계에 따라 정리해 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자. -작품론적 측면 3. 이 작품에 드러난 옛 사람들의 풍류에 대해서 말해보자. 특히, 아래에 제시된 말들의 뜻을 알아보고, 이를 당시 선비들의 삶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자. -문화론적 측면 (안빈낙도, 풍월주인, 물아일체) <p><적용 학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작품에 묘사된 ‘봄’의 한 장면을 각자 그림으로 그려 보고, 이를 친구들 앞에서 설명해 보자. 2. 이 작품은 자연을 그리면서 그것을 연군이나 인간사에 대한 관심과 관련시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표현 대상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인 작품과, 순수하게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작품을 찾아보고, 이때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문화론적 측면 3. 이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삶의 방식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p>학습활동 내용</p>	<p>화자의 삶의 방식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자. -문화론적 측면</p> <p><창작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에서와 같이 심상과 비유를 적절히 사용하여 ‘봄’의 어떤 모습을 묘사해 보자. -작품론적 측면 <p>(1)봄의 어떤 모습을 묘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p> <p>(2)이를 어떠한 표현법과 형식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결정한다.</p> <p>(3)심상과 비유를 사용할 때에는 이 작품에 나타난 형식을 이용하되, 자기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찾으려 한다.</p> <p>(4)다 쓴 다음에는 친구들과 돌려 읽고, 문제점을 발견해 낸다.</p> <p>(5)이를 바탕으로 표현과 내용을 고치는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한다.</p>
<p>단원명</p>	<p>Ⅲ. 민족 문학의 흐름</p>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큰 흐름을 안다. · 각 시기의 사회상과 문학의 상관관계를 안다. · 각 시기 문학들 사이의 연계성을 안다. · 각 시기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안다.
<p>학습 활동 내용</p>	<p><심화 활동></p> <p>4. 다음 작품들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하여 보자.</p> <p>(가) 주몽신화 (나) 서동요 (다) 사모곡</p> <p>(라) 십년을 경영하여~ (송순)</p> <p>(마) 상춘곡</p> <p>(5) (라)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간략하게 말하여 보자. -문화론적 측면</p> <p>(6) (마)는 4·4조 4음보의 율격과 더불어 대구에 의한 리듬도 나타난다. 대구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자. -작품론적 측면</p>

「상문 下」에서는 ‘상춘곡’의 화자가 자연을 통해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학습하도록 선정하였다. <확인 활동> (1)에서는 ‘서사 - 풍월 주인이 되어 지락을 누림’, ‘본사-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여유를 즐김, 봄 풍경에 젖어 즐거움을 누림, 별천지와 같은 봄 풍경을 즐김’, ‘결사-안빈낙도의 생활에 만족함’이 분류에 따라 해당 텍스트의 구절을 찾아보는 학습을 한다. ‘강호가사’의 일반적 구성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고 가르치기에 좋은 활동이다. <확인 활동> (2)에서는 현대 시인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제시하고,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상춘곡’에서 찾는 활동이다. <개별활동> 2에서는 시적 화자가 현실적 삶이 배제된 자연 속에서의 낭만을 추구하며 자신만이 고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비판하는 활동이다. 물론 고전 작품속의 화자가 모두 옳고 바른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러한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몫이다. 교사용 지도서의 예시답안을 보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 돕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간다. 모두가 시적 화자와 같다면 현실은 적막하고 정체될 것이다. 자신의 인품만 고결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만 고귀한 삶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조건을 너무나 손쉽게 내팽개친, 안이한 태도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를 어떻게 보는지 학습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두는 활동을 토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겠다.

<모둠활동> 3에서도 위의 문제와 같은 오류가 범해지고 있다. 시적 화자가 ‘무릉도원’을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런 설정은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것이라 치부하고 있다. ‘상투적·관습적’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고전 작품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이상향을 묘사 해 보라는 식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사소한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고전 작품이 항상 그렇고 그런 舊時代적이고 상투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는 문학의 목표인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¹⁹⁾에도 어긋나는 교육 활동인 것이다.

「천재 上」에서는 ‘상춘곡’을 이용하여 <내용 학습>에서 봄의 표현 기법을 알아보고 시상, 당시의 풍류에 대해 알아보는 등 ‘작품론적 측면’과 ‘문화론적 측면’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적용 학습>에서는 <상춘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는 활동인데 여기에서는 그림으로 그려보기, 다른 작품을 찾아 비교해 보기, 화자의 삶의 방식을 주제로 토론해 보기가 있는데 짧은 활동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상춘곡>을 이해하고 내면화 하는데 효과적이겠다.

<창작 활동>에서는 <상춘곡>의 봄의 모습을 학습자가 감상 한 후, 자신의 봄에 대한 감상을 단계적으로 표현·창작해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 내면의 봄에 대한 감상이나 자연에 대한 감성을 끌어내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천재 上」에서는 ‘상춘곡’의 ‘작품론적 측면’을 통해 ‘태도론적 측면’의 교육적 가치를 피하였고, 세 가지 교육적 가치가 골고루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금성 下」에서는 시대별, 장르별로 다른 다섯 작품을 함께 제시하여 민족 문학의 흐름을 이해·비교할 수 있도록 심화 활동을 구성하였다. <상춘곡>은 ‘작품론적 측면’(그 중에서도 언어교육적 측면)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있다. 대구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 가사의 리듬을 느껴보는 활동인데 일부의 표현요소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예문 전체를 통해 리듬을 형성하는 요소를 모두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상춘곡>은 ‘화자의 태도’나 ‘언어의 특징’에 학습

19)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2001, 303쪽.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천재 상」에는 ‘창작 활동’을 통해 ‘태도론적 측면’도 구성하고 있지만, 대체로 ‘작품론적 측면’과 ‘문화론적 측면’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면앙정가>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3) 누항사

- 두산 下 · 교학사 上

<p>단원명</p>	<p>V.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 1. 한국 문학의 모색과 정립 (3) 삶의 윤리와 문학의 윤리</p>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성과 지향성을 이해한다. · 문학은 인접 예술을 비롯한 사회·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됨을 이해한다.
<p>학습 활동 내용</p>	<p><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에서 여유 있는 사대부의 대열에도, 농민의 대열에도 편입되지 못하는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문화론적 측면</p> <p>2.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 글을 읽고, ‘누항사’와 비교해 보자.</p> <p><보기.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중></p> <p>(1) 두 시인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p> <p>(2) 두 작품에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방식상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작품론적 측면·문화론적 측면</p>

<p>단원명</p>	<p>II. 문학의 수용과 창작 2. 문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p>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인식적, 미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 작품에서 다룬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한다.
<p>학습 활동 내용</p>	<p>〈단원의 마무리〉 -심화 1. 다음 글은 박인로의 ‘누항사’의 일부이다.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삶의 모습을 파악해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문화론적 측면·태도론적 측면</p>

〈누항사〉는 전기 ‘강호’와는 그 공간과 화자의 정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누항사〉의 화자는 신분적 제약으로 정계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없고, 너무 가난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소외된 처지이다. 이런 화자에게 ‘강호’는 속세와 물욕을 떠나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롭게 살아 보자는 초월적 태도의 공간인 것이다. 즉, 인간 세상과 분리 되고, 단절 된 공간인 것이다.

「두산 下」에서는 조선 후기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누항사〉를 제재로 선택했다. 〈작품 속으로〉에서는 화자의 신분적 소외감을 드러낸 부분을 찾고,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와 비교해 보는 활동이 있다. 그리고 ‘귀거래사’와 표현 방식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누항사〉는 소 빌리러 간 일화를 제시하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전의 ‘강호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니, 이후 ‘강호가사’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한다는 의의가 된다.

이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강호가사’를 분류해 보면 〈상춘곡〉, 〈면앙정가〉, 〈누항사〉 세 편이 두드러진다. 모두 작품론적 측면의 교육과 문화론

적 측면의 교육에 치중된 학습 내용으로 학습자들이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거나,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거의 없는 활동들이다. 게다가 간혹 보이는 ‘태도론적 측면’으로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자연관을 파악하여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는 정도가 대부분인 점을 본다면, 형식적인 ‘내면화’ 학습 활동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강호가사’ 학습 활동의 문제를 보고, 세 작품 중 ‘자연의 아름다움’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누항사>는 화자가 현실에서의 빈곤함을 자연 속에 들어가 잊고 살겠다는 의지로 자연을 배경으로 택했고,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과 가난함을 피해 강호를 빈이무원의 공간으로 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이 현실에서의 빈곤과 부조리함을 통해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엔 나머지 두 작품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춘곡>과 <면앙정가>는 교육 활용 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 <상춘곡>은 봄을 제재로 한 언어 표현 교육으로 많은 교과서들이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면앙정가>는 ‘화자의 자연관, 자연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아보는 학습이 상대적으로 많다. 두 작품 모두 ‘작품론적 측면’, ‘문화론적 측면’을 교수-학습할 작품으로 손색이 없으나 ‘태도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화자의 태도’가 교육 활용 대상으로 잘 드러난 <면앙정가>가 학습자들의 내면화 교육에 더 적당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즉, <면앙정가>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부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 자연을 인간의 궁극적인 귀의처로 본 점, 자연을 통해 화자의 호탕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면앙정가>를 본고의 대상 작품으로 정한다.

앞으로 <면앙정가>를 중심 작품으로 하여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범주, 1)

작품론적 측면, 2) 문화론적 측면, 3) 태도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교수-학습의
실제를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Ⅲ. <면앙정가> 교수-학습의 실제

앞에서 살펴본 강호가사의 교수-학습은 작품론적 측면과 문화론적 측면, 태도론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편향된 교육위주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태도론적 측면으로 학습자들에게 자연관을 내면화하는 교수-학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작품 교육과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을 묻거나 고전 작품끼리의 비교로 학습자들에게 학습 이상으로의 기회를 주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족한 점은 교사들의 재량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품론적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학습활동지의 제시로, 문화론적 측면에서는 <면앙정가> 창작시기의 여러 문화들 중 작품 이해를 위하여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보았다. 마지막 태도론적 측면에서는 <면앙정가>의 현대적 변용과 현대적 관점에서 보는 활동을 통하여 작품을 내면화하는 교수-학습활동을 제시하여 보았다.

1. 작품론적 측면

시라는 것은 언어를 가장 고도로 활용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시 교육은 가장 정도가 높은 언어교육이 된다. 이 경우의 언어교육이란 언어이론이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그것은 우선 모국어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는 교육이다.²⁰⁾ 이런 점은 고전시가라고 해서 예외는 아

20)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시는 왜 가르치는가>, 고려대 출판부, 1998, 8쪽.

니다.

《국어 上》에 수록된 <어부사시사>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이다. 문학 작품은 언어를 매재로 하기 때문에 언어가 지닌 음성적 자질과 회화적 자질, 의미적 자질이 각각 최대로 발휘될 때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을 띠게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때 아름다움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질을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의 아름다움이 실현된다.

시 언어의 구성 요소를 ‘강호시가’를 통해 학습시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시가보다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면앙정가>는 4(3)·4조의 리듬, 압운법, 반복, 열거와 대구, 묘사, 비유, 상징 등이 풍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양상을 배우기에 적당하다. 그러나 ‘고전시가’는 학습자들에게 어구 해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시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어구 풀이를 교사 주도에서 학습자 활동이라는 이양의 형태로 학습시키고 난 후, ‘음악성’, ‘형상성’을 학습 활동의 형태로 배울 수 있게 한다. 단, 시 언어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함축성’이 <면앙정가>에서는 개별 어휘의 함축성이 아니라 작품을 보는 화자의 자연관이 함축으로 나타나므로 ‘문화론적 측면’에서 화자의 자연관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이제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면앙정가> 언어의 아름다움을 습득하고, 언어를 통해 대상의 의미를 배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

1) <면앙정가> 텍스트 언어 의미 이해하기

본문 이해·해석의 첫 단계는 어휘를 학습자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고 교

사가 직접 텍스트를 읽어나가며 풀이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어구 풀이를 통해 내용과 어휘를 이해해야 ‘작품론·문화론·태도론’적 측면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루기로 한다.

<면양정가>는 ‘고전 시가’ 중에서 그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 작품이다. 국문시가로 대부분의 어휘가 우리말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결어미나 접사의 어려움, 생소한 어휘, 대상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학습자들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어구·어휘 풀이를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 다음은 <면양정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세요.

1. 다음 어휘를 현대어로 써 보세요.

- | | |
|---------------|----------------|
| • 활기 | • 백척 난간 |
| • 동다히로 | • 수면 양풍(水面 涼風) |
| • 세쳐 와 | • 즌 서리 |
| • 무변대야(無邊大野) | • 금수(錦繡) |
| • 모습 짐작 | • 황운(黃雲) |
| • 흙딴움쳐 | • 만경(萬頃) |
| • 므득므득 버려논 듯 | • 어적(漁笛) |
| • 굵기 든 늘근 농 | • 미물커늘 |
| • 느리 버렸논 듯 | • 현스향야 |
| • 울울히 | • 경궁요대(瓊宮瑤臺) |
| • 겁 | • 옥해은산(玉海銀山) |
| • 칩뻗논듯 | • 안저(眼底) |
| • 비얏바 | • 건곤(乾坤) |
| • 므소친 사정(沙汀)은 | • 가음열샤 |
| • 이지러운 기럭기 | • 혀려 |
| • 므스거슬 어로노라 | • 유여(有餘) |
| • 노화 | • 번로(煩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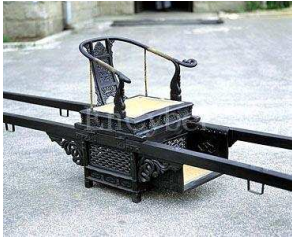
- 우러곰
- 이즈러온
- 짓치 아녀
- 머믄 것도
- 브흰 연하(煙霞)
- 산람 (山嵐)
- 천암 만학(千巖 萬壑)
- 일희
- 사양(斜陽)과 셋거디어
- 비야 트고
- 나모 새 즈즈지여
- 樹陰이 얼린 적
- 므디어
-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 시름이라 브터시라
- 을프락 프람ㅎ락 노혜로 소기니
- 희황
-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
- 호탕정회(浩蕩情懷)
- 역군은(亦君恩)

2. 다음 인물들의 자료를 찾아봅시다.

- 희황(羲皇)
- 이태백

본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습자들에게 찾아보아야 할 어휘와 구절을 제시한 학습지를 주고 현대어로 고쳐보는 활동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찾아본 후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으로 다시 반복한다면 학습자의 이해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정확한 감상과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하여 사진을 제시하여 어휘를 이해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진 자료를 사용하면 학습자의 경험을 떠올릴 기회가 줄어들고 상상력에 제한을 가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지식을 더할 수 있는 어휘의 사진 자료로 골라 보여준다.

《사진 자료 예》



《사진 3 - 藍輿》



《사진 4 - 황앵》



《사진 5- 버드
나무》



《사진 6- 시비》



《사진 7- 청려장》

어려운 낱말을 찾아보는 학습 후엔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겠다. 텍스트 해석은 단어의 이해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다. <면앙정가>는 어려운 전고나 한자어가 드물고 우리말이 많아 학습자들이 해석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어와

는 형태가 다른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면 된다.

텍스트 해석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빈 칸 채우기가 효과적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현대어로 읽어나가면서 뜻을 써 넣는 방식으로 작품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다음은 <면앙정가>의 현대어 풀이입니다. 교과서의 원문을 보면서 빈 칸을 채워보세요.

무등산 한 줄기 산이 () 뻗어 있어 / 멀리 떨치고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 () 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 일곱 굽이가 한 곳에 움츠려 () 벌여 놓은 듯한가. / 가운데 () 는 () 늙은 용이 /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니.

() 위에 /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 구름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려고 / () 를 벌리고 있는 듯하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 물이 / 정자 앞 넓은 들에 () 퍼진 듯이 /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 / 두 마리의 용이 몸을 뒤트는 듯, () 을 짝 펼쳐 놓은 듯, / 어디로 가느라고 () 이 바빠서 / () 듯, ()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다.

...(중략)...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 / 바람도 () 하고, 달도 () / 밤[粟]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 () 은 누가 닫으며 () 은 누가 쓸 것인가. / 아침이 () 저녁이라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싫을 소냐. / 오늘도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 /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 () 이지만 버릴 일이 전혀 없다. / 쉴 사이도 없는데 (면앙정으로 오는, 또는 자연을 벗 삼는 삶의) 길을 가르쳐 줄 틈이 있으랴. / (경치를 감상하느라 하도 다녀서) 다만 () 가 다 ()

가는구나.

술이 () 벗이 없을 것인가. / (노래를) 부르며 하며, (악기를) 타게 하며 켜며 하며,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며 / 온갖 소리로 취흥을 () / 근심이 있겠으며 시름이 (). / 누웠다가 앉았다가 () 젖혔다가 / (시름) 읊다가 () 하며 마음 놓고 노니 / 천지도 넓고 넓으며 () 한가하다. /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더니 () 그 때로구나. / 신선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이 몸이야 말로 ()이로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거느리고 내 ()을 다 누리면 /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온들 / ()가 이보다 더할 소냐.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이시도다.

위의 활동지는 <면앙정가>를 현대 풀이한 형태로 풀어 놓고 중간 중간 빈칸을 만들어 학습자들이 원문을 읽어가며 적당한 뜻을 써 넣는 활동이다. 비워놓을 단어는 <면앙정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어휘·어구의 뜻은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찾는다거나 학생주도의 학습 보다는 교사의 강의법이 더 적절한 교수방법이다.

2) <면앙정가>의 음악성 이해하기

시는 시어가 잘 다듬어진 형태 속에서 운율과 같은 음악적 자질을 최대한 발현할 때 시의 아름다움이 실현된다. 이것이 시의 음악성에 대한 내용이다. <면앙정가>는 가사작품으로서 4(3)·4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리듬을 걸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앙정가>의 음악성은 4(3)·4조의 울격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압운법, 열거와 대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리듬을 이루는

요소가 풍부하다.

이 곳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하도록 내용을 조직해 본다. 그리고 시각적 매체와 청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보고, 들어 그 음악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를 얻는다.

① 4(3)·4조의 리듬 익히기

가사의 음악성이라고 하면 4(3)·4조 4음보의 리듬이 가장 기본을 이룬다. <면앙정가>만의 개성적인 음악적 표현을 학습하기 전에 가사라는 장르의 음악성을 학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 활동지는 <면앙정가>의 한 부분과 광고 문구의 한 부분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효과와 현대적 활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은 면앙정가의 일부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玉泉山/ 龍泉山/ 느린/ 물히
亭子 압/ 너븐 들히/ 兀兀히/ 퍼진 드시
넙거든/ 기노라/ 프료거든/ 회지마니
雙龍이/ 뒤느는 듯/ 긴 김을/ 칩팻는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닷는 듯/ 썩로논 듯/ 밤늦즈로/ 흐르논 듯
므소친/ 沙汀은/ 눈긏치/ 퍼젓거든
이지러온/ 기력기논/ 모스거슬/ 어로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흐트락/
蘆花을/ 스이 두고/ 우러곰/ 좃니논고.

1. 위에 제시된 부분을 ‘/’표시에 맞추어 끊어 읽어 봅시다.

2. 다음 광고 문구를 <면양정가>와 같이 4·4조 4음보로 끊어 읽어 봅시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 광고>

<광고 문구1> 조선남녀 상열지사 향기타고 불붙는다 이번주만 향수반값
얼른가서 클릭하세

<광고 문구2> 가을유행 새청바지 옥션에서 냉큼사니 늑대들이 줄을선다
번호표를 뽑으시오.

3. 전문 낭송인과 성우의 목소리로 위 두 작품의 낭송을 들어보고, 낭송인의 목소리에 따라 다른 느낌을 비교해 봅시다.

⇒

4. 가사의 율격인 4(3)·4조 4음보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써 봅시다.

⇒

5. 위의 리듬과 같이 4(3)·4조 4음보의 가사를 지어봅시다. (광고 카피 형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우의 목소리와 읽는 방법도 함께 언급 해 봅시다.

⇒

4(3)·4조 4음보의 율격은 진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한 광고는 광고 문구에 가사의 율격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참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전의 가치를 새롭게 알 수 있는 문화적 상황과 이것을 통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면앙정가>를 끊어 읽을 때, 학습자 스스로 읽어보는 것도 좋겠고 전문 낭송인의 낭송을 들으며 리듬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²¹⁾ 이 때 낭송인의 낭송 방법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학습도 재미있는데, 나라면 어떻게 읽을 것인지 생각하여 앞에서 낭송해 보는 식의 수업을 짜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 후 위에 제시된 광고가 있는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앞의 학습과 같은 방식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가사율격의 효과는 내용이 잘 이해된다는 점과 3음보에 비해 완결된 내용을 가져 안정감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4음보의 음보율은 문장의 대구를 만들기에 좋아서, <면앙정가>는 많은 대구 문장으로 리듬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내용을 학습시킨다.

4(3)·4조 4음보의 형태와 효과를 알았다면, 그 지식을 토대로 각자 가사를 창작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예시》

오늘따라 유난히도 바깥날씨 너무좋아
책상앞에 앉은나를 심란하게 하는구나
머리속은 복잡하고 눈동자도 요리조리
오늘공부 이만접고 나들이나 가자꾸나.

그러나 교사는 실제 가사가 4(3)·4조를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주의시키고, 4음보의 형태는 지키되 글자 수를 3~5개 정도의 범위에서

21) <http://www.damyang.go.kr/new/gasa/sub08.htm> 이 사이트는 사이버 한국 가사문학관으로서 가사 낭송 자료가 유명한 작품을 중심으로 올려져있다. 물론 면앙정가 낭송 자료도 이 곳에서 참조할 수 있다.

리듬감있게 지어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가사의 특성상, 자기표현의 부연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를 통해 소설을 지어 보고, 수필도 써 보도록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볼 수도 있겠다.

가사를 창작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성우의 목소리를 설정해보고 배경을 그려보는 활동까지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문화적인 경험을 시키고, 고전을 이용한 현대적 문화 개발의 가능성을 알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② 압운의 이해

<면앙정가>에서는 한시에도 쓰였던 압운법이 음악적 리듬을 형성해준다. 압운법은 동일한 성조를 같은 자리에 규칙적으로 배열시키는 방법이다. <면앙정가>에 드러난 압운으로 「-는 듯」, 「-락」, 「-가」, 「-거니」, 「-명성」, 「-도」가 보이는데, 음악적 리듬은 낭송을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낭송의 방법을 사용하고, 현대 음악과 비교하여 그 음악적 특징을 확실히 알도록 교수-학습 한다.

※다음의 활동을 통해 압운법을 배워 봅시다.

(가) ① 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닷는 듯 싹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노픈 듯 낙은 듯 굶는 듯 닳는 듯

② 안즈락 낙리락 모드락 흐트락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③ 두로고 쇠즌 거슨 피헨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⑤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의 쉼거니 廣野로 건너거니

⑥ 나명성 들명성 일희도 구는지고

⑨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보름도 혀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나) 【노래】 내 바다 속에는 깊은 슬픔과 헛된 고민들 회오리치네
그 바다 위에선 불어닥치는 세상의 추위 맘을 열게해
때로 홀로 울기도 지칠 때 두 눈 감고 짐짓 잠이 들면
나의 바다 그 고요한 곳에 무겁게 내려가 나를 바라보네
난 이리 어리석은가 한 치도 자라지 않았나
그 어린 날의 웃음을 잃어만 갔던가
초라한 나의 세상에 폐허로 남은 추억들도
나 버릴 수는 없었던 내 삶의 일부가

【랩】 나 어릴 적 끝도 없이 가다 지쳐버려 무릎 꿇어 버린 바다
옛날 너무나도 고운 모래 바다 이젠 모래 위에 깊은 상처 하나
행복하고 사랑했던 그대와 나 생각만으로 웃음 짓던 꿈도 많아
바다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작아 흐르는 눈물 두 손 주먹쥐고 닦아
많은 꿈을 꾸었는데 이젠 차마 날 보기가 두려워서 그냥 참아
그때 내가 바라보던 것들 아마 볼 수 없겠지만 그대로 눈을 감아
나의 낡은 서랍 속의 깊은 바다 이젠 두 눈 감고 다시한번 닫아

-패닉,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1. (가)는 <면앙정가>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한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를 강조하여 읽어봅시다.

2. (나)는 현대 가요 중 한 구절입니다. 다음을 낭송해 보고 (가)의 짙은 글자와 같은 효과를 주는 부분을 동그라미 해 보세요.

3. 1,2와 같은 시의 형태는 어떤 효과를 주는지 써 보세요.

⇒

4. <면앙정가>의 압운과 <내 낚은 서랍 속의 바다>의 압운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써 보세요.

⇒

압운은 가사의 음악성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형식이다. 압운은 현대 가요 가사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 예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압운의 리듬감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로 든 패닉의 ‘내 낚은 서랍 속의 바다’는 【노래】 부분에서 ‘-네, -해’의 종결 어미, ‘-나, -가’의 종결어미로 압운이 실현됐고, 【랩】 부분에서는 ‘가다, 바다, 바다, 하나, 나, 많아, 작아, 닻아, 차마, 참아, 아마, 감아, 바다, 단다’로 모두 끝나며 ‘-ㅏ아’의 형태를 통해 압운이 실현되었다. 노래 가사는 노래 전체에 걸쳐 종결어미를 맞추었고, <면앙정가>는 부분, 부분 반복 음운이 실현되었다. 또 노래 가사와 달리 <면앙정가>는 대구의 형태와 함께 압운이 실현되어 현대 노래 가사의 압운보다 정형성이 두드러진다. 아무래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압운을 실현하는 것

보다 같은 음소나 음운을 사용하여 압운을 실현하는 현대 노래 가요가 ‘낮설게 하기’의 효과를 얻어 묘미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초가 <면앙정가>와 같이, 같은 단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 고전문학의 가치를 인식시켜야 하겠다.

③ 대구의 이해

열거는 비슷한 구의 나열이고, 대구는 어떤 한 구절이 있으면 그것과 성질이나 종류가 같든지, 또 정반대가 되는 일을 글자 수가 같도록 짝지어 나가는 문장을 얘기한다. <면앙정가>에서는 열거의 예로 구름과 안개, 산의 아지랑이를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이라고 그 색채와 형태를 다양하게 제시한 것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열거는 압운의 학습에서 같이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시키고 대구에 대한 학습만 언급하겠다. 대구는 어떤 대상을 나타낼 때 하나의 구가 아닌, 보충되는 다른 구를 더 넣어 대상의 표현이나 내용을 풍부하게 확대하였다. 이런 특징으로 작품의 음악성에 기여하는데 <면앙정가>의 음악성을 학습하기 위한 요소로 필수적이어서 대구를 학습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한다.

※ 다음은 <면앙정가> 중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을 모은 것입니다.

1. 다음 구절은 앞·뒤의 구절이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를 참고하여 문제의 앞 또는 뒷 구절에 들어 갈 만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예문은 참고로 하고 각자 어울리는 다른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예

넙거든 기노라	프료거든 회지마니
---------	-----------

(넓고 길게 흐르는 강물을 보고 하는 말)

⇒넙거든 길지말고, _____.

예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 이것도 보려고 하고, _____.	
예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 봄은 언제 줍고, _____.	
예	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 _____, 진 꽃은 누가 쓸려나.	
예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나.
	오늘리 不足커니	來日리라 有餘하랴.
	⇒ 아침이 모자라니, _____ . _____ , _____ .	
예	술리 너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 술이 익어가니, _____ .	
예	天地도 넘고넘고	日月 흥가흥다.
	⇒ _____ , 세월도 한가하다.	

<면앙정가>는 유사한 어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용사나 부사를 연결시키는 모습, 비슷한 구절의 반복으로 열거의 모습이 보인다. 특히 열거의 모습이 대구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가사의 리듬이 더욱 잘 표현되

고 있다. 학습자들이 직접 현대어로 대구를 만들어보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대구와 열거의 특성과 그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나서 교사는 대구 형식의 효과를 강의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수한다. 대구 형식의 사용 효과는 첫째, 읽고 기억하기가 쉽다. 둘째, 무게를 더해 준다. 즉, 예를 들어 ‘오늘리 不足커니, 來日이야 有餘하라.’는 구절은 앞부분의 ‘오늘이 부족커니’로 ‘매일 자연을 감상하여도 그 시간이 부족함’을 표현할 수 있으나 ‘來日이야 有餘하라’는 뒷부분으로 대구를 만들어 표현의 부족감을 보충해주고 있다. 셋째, 표현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어 감동을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넷째, 흥을 돋운다. 즉 시의 리듬을 더해 읽는 이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다.

3) <면앙정가>의 형상성 이해하기

노래하기의 표현 원리로 작용하는 시의 속성에는 음악성 외에도 이미지, 비유, 상징 등이 있다. 그 중, 형상성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인이 전달하려는 관념과 정서가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감각적 차원으로 구체화 된 것을 말한다. 이미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도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말하며 심상이라고도 한다. 김상옥의 <사향>에서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이라는 구절을 보고 우리는 송아지를 몰고 오며 보는 저녁 노을과 진달래꽃이 온 산을 둘러 퍼지는 모양의 시각적 이미지와 진달래 꽃지짐의 향그러운 내음새의 후각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 같이 감각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는 작자가 표현하는 형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상으

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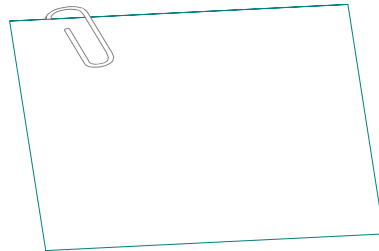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이 이미지가 시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설이나 수필 등 다른 장르의 문학 작품이나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시의 이미지는 음악성이나 함축성과 함께 형상화 된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의 문학 작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면앙정가>에서는 어떤 대상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찾아보는 학습을 하고, 직접 수필과 비교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면앙정가>는 시각적인 심상이 강조되어 있어 다른 감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나, 시각적 심상을 작품 전반에 걸쳐 충분히 활용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형상화가 이루어졌는지 학습하기에 적당하다.

※ 다음은 <면앙정가>의 일부분입니다. 각 부분이 어떻게 형상화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1. 아래는 <면앙정가>의 각각 다른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림을 그려보고, 묘사의 대상을 찾아봅시다.

1) 이름난 산(名山)

无等山 혼 활기 뫼희 동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세쳐 와 霽月峯의 되여거늘
無邊大野의 모습 짐작 흐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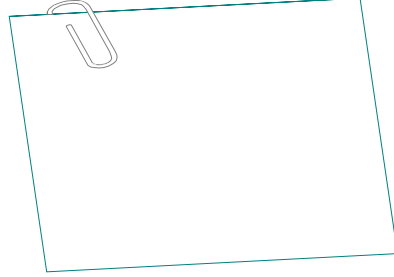
⇒ 여기에서 묘사의 대상은 _____이기도 하고, _____이기도 하다.

무등산의 한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있다는 시각적 묘사를 통해 무등산의 웅장함을 형상화 하였고, 제월봉은 무등산 줄기를 떼어 버리고 나와 주변으로 펼쳐진 넓은 광야 가운데서 홀로 무슨 생각을 하는 듯하다는 표현으로 제월봉을 사람처럼 _____ 화하여(비유의 한 방법) _____ 적

(심상의 한 종류)으로 형상화 하였다.

2) 산세의 일곱 굽이(七曲)

일곱 구비 흠뻑 움켜 무득무득 버려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굽과 든 늘근 놓이
선잠을 갖 썩야 머리를 안쳐시니
너르바회 우회
松竹을 헤치고 亭子를 안쳐시니
구름 툇 靑鶴이 千里를 가리라
두 느리 버려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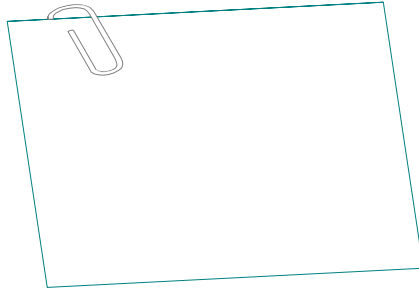


⇒ 묘사의 대상은 면양정이 있는 위치와 면양정의 형태이다. 면양정의 위치는 제월봉의 일곱 굽이 중 가운데 구비로 그 구비는 구멍에 든 _____이 선잠을 막 깨 머리를 얹힌 모습이라고 (상징적,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면양정의 형태는 _____에 비유하여 두 날개를 짝 펼쳐 천리를 날아가려 하는 모습이라고 (상징적,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 물(水)

玉泉山 龍泉山 느린 물히
亭子 압 너븐 들히 兀兀히 퍼진 드시
넙거든 기노라 프료거든 희지마니
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칩뻗는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닷는 듯 색로는 듯 밤늦즈로 흐르는 듯
므소친 沙汀은 눈긏치 퍼졌거든
이지러운 기력기는 모스거슬 어로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흐트락
蘆花을 스이 두고 **우러곰 좃니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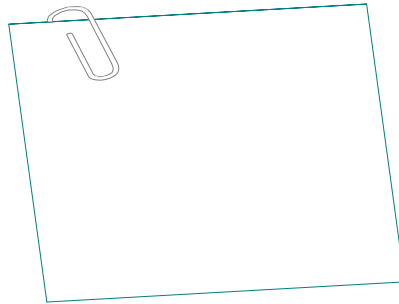
⇒ 1~6행의 묘사의 대상은 ① _____이고, 7~10행의 묘사의 대상은 ② _____ 과 ③ _____ 이다.

①의 흐르는 모습은 _____ 과 _____ 으로 비유하였고, ②는 _____ 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넓은 들에 펼쳐진 강물과 그 주변의 모래사장, 갈대밭, 갈매기의 모습을 _____ 적(심상의 한 종류)으로 묘사하였다.

4) 산(山)

너른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두로고 쏘즌 거슨 피힌가 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늑즌 듯 굳는 듯 닛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이즈러은 가운데 일흠 논 양하야 하늘도 짓치 아녀
웃득이 섯는 거시 秋月山 머리 짓고
龍歸山 鳳旋山
佛臺山 漁燈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은 것도 하도 할샤.



⇒ 묘사의 대상은 면앙정에서 보는 여러 산봉우리의 모습들이다. 이 묘사의 대상인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_____ 과 _____ 에 비유되고 있다. 그리고 산봉우리의 이어진 모습을 높은 듯 낮은 듯, 끝나는 듯 이어져있는 듯, 혹은 숨어버리는 곳도 있고 뚜렷이 나타나는 곳도 있고, 가는 것 같은 곳도 있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곳도 있다는 식으로 _____ 적(심상의 한 종류)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5) 산의 아지랑이(山嵐)

흰구름 브흰 煙霞 프로니는 山嵐이라.

千巖 萬壑을 제 집으로 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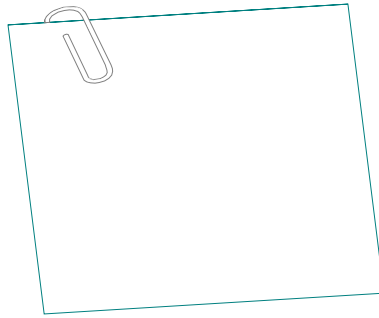
나명성 들명성 일희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의 썬나거니 廣野로 건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斜陽과 섯거디어 細雨조츠 썬리는다.



⇒ 묘사의 대상은 1행에 다 나타나는데, _____ 과 _____ 과 _____ 이다.

이 연은 색채의 대비 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구름은 _____ 색, 안개와 노을은 _____ 색, 산의 아지랑이는 _____ 색이다.

이런 색의 조화는 _____ 이라는 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고 들고, 오르고 내리고, 긴 하늘로 떠나고 넓은 광야를 건너기도 하는 등 대상들의 움직임과 색채가 지배적이어서 _____ 적(심상의 종류) 형상화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해가 짐을 나타내는 사양(斜陽)과 _____ 로 산의 신비한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활동은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해한 후, 묘사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어디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면 시의 장면을 머리 속에 그리는데 도움을 주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면양정가>는 정서를 표현하는 ‘시’에서는 보기 드문 묘사의 방법으로 거의

모든 대상들이 그려지고 있다. 묘사는 다양한 심상과 함께 나타나는데 <면양정가>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면양정가>에서는 대부분의 대상 묘사에 비유가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비유가 시의 요소인 ‘함축성’에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같이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주의할 점은 학습자들에게 비유가 언어의 ‘함축성’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묘사의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이 작품에 나타났기 때문에 함께 살펴본다는 의도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학습 활동의 ①은 ‘면양정’이 들어선 무등산의 기세와 무등산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있는데, 그 줄기를 떨치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다는 제월봉의 지세를 묘사한 것이다. ②는 제월봉의 일곱 굽이를 무더기무더기 벌여 놓은 듯한 가운데, 그 가운데 굽이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 하다 하였다. 이곳은 면양정이 있는 제월봉의 한 굽이를 늙은 용의 머리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이러한 곳에 정자를 세웠으니 그 모양세가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려고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하다. 선잠을 깃 깨고 머리를 들어 승천을 예비하는 용의 모습을 한 반석 위에 자리 잡은 면양정의 모양새 또한 청학이 날아가려고 날개를 편 형세이다. 이것은 면양정의 좋은 위치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③은 여기에서는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내려온 물이 두 마리의 용처럼, 긴 비단처럼 흘러내려 정자 앞의 넓은 들판을 흘러간다. ‘듯이, 듯’으로 직유적 표현을 통해 냇물의 아름다움과 냇가에 펼쳐진 눈 같은 흰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장관을 그리고 있다. 그 흰 모래사장은 갈대꽃이 펼쳐져있고 기러기는 그 사이를 바쁘게 드나들고 있는 모양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④는 여기에서는 여러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산 봉우리를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둘러 있고 꽃혀 있는 것이라고 묘사하며 그것을 ‘병풍과 그림’에 비유하고 있다. 높은 것 같으면서도 낮고, 그치는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숨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고, 가는 것 같

으면서도 머무르는 ‘산봉우리’의 이어진 모습을 압운을 사용하여 리듬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어지러운 모습에도 유명한 체 뿔내며 하늘도 두려워 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다. 여기에서는 ‘~양호야’는 어휘를 통해 직유 표현이 보이고, 화자가 우뚝한 산봉우리들을 비유한 표현을 보면 자신의 기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⑤는 석양 무렵 안개가 골짜기에 내려앉고,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우리말의 리듬을 살려 맛깔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구름과 안개, 노을, 산 아지랑이가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나면서 들면서 아양을 떠다며 의인화를 하여 석양 무렵 산의 모습을 仙界 처럼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질기도 한 산의 해 지는 신이한 순간 細雨까지 뿌려지니 인간세상과는 별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다고 묘사하였다.

위 학습 활동의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는 형태는 교사의 내용 지도와 함께 학습자의 이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용 전체를 복습·평가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면앙정가>의 ‘묘사’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묘사하는 대상을 그려보는 일과 괄호 채우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다음은 <면앙정가>에 나타난 사계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 봄

藍輿를 비야 타고 술 아리 구분 길로

오며 가며 흥는 적의

綠楊의 우는 黃鶯 嬌態 겨워 흥는괴야.

㉠ 여름

나모 새 자자지여 樹陰이 얼린 적의
百尺 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 涼風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 가을

즌서리 싸진 후의 산 빗치 錦繡로다.
黃雲은 쏜 엇지 萬頃에 편거기요.
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닌다.

㉢ 겨울

草木 다 진 후의 江山이 락물커늘
造物이 흰스흐야 氷雪로 꾸며 내니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이 眼底에 버려세라.

1. 위 사계에 나타난 자연물을 다음 의미지도표에 써 넣으세요.

·
·

봄

·
·

여름

사 계

가을

겨울

·
·
·

·
·

2. 의미지도를 참고로 각 사계의 표현상 특징을 _____ 위에 쓰세요.

- ㉠ 묘사의 대상은 _____ 이고,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_____ 과 _____ 같은 자연물을 사용하였다.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을 통해 _____ 심상과 _____ 심상이 조화되어 봄의 경치를 아름답게 형상화 하였다.
- ㉡ 묘사의 대상은 _____ 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_____ 과 _____ 이라는 표현을 썼다.
- ㉢ 묘사의 대상은 _____ 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산의 색을 _____ 에 비유하였고, 곡식이 익은 가을 들판을 _____ 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 구절인 ‘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닌다.’에서는 _____ 심상과 _____ 심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아름다운 가을 밤의 장면을 형상화 하였다.
- ㉣ 묘사의 대상은 _____ 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_____ 와 _____ 이라는 표현을 썼다.

위는 사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형상성을 교수-학습 하기위한 활동지이다. 한 방법으로 ‘의미지도’를 이용하여 사계의 표현물들을 알아보는데, 의미 지도는 범주화된 정보를 도식화시키는 것으로 소설과 같은 복잡한 이야기를 나눠 볼 때도 사용하지만 시에서 비교 가능한 대상이 나오면 의미지도를 이용해 차이를 알아보는데 효과적이다.

㉠~㉣은 봄·여름·가을·겨울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는 푸른 버드나무와 피꼬리의 애교 있는 울음소리로 봄의 흥을 느끼고, 여름엔 나무와 억새풀이 녹음

짙어진 시원한 숲에서 긴 난간에 기대어 긴 줄음을 조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는 여유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연은 가을 산의 빛을 알록달록한 비단의 아름다운 색에 비유하기도 하고, 곡식이 익어 누런 들판을 온 들판에 퍼져있는 황운이라고 비유하여 가을의 풍성함과 여유로움, 넉넉함을 풍경에 빗대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달빛 아래 그 흥에 겨워 부르는 어부의 피리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에서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가을밤의 신선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겨울엔 초목이 다 지고, 강산은 조물주의 야단스러움으로 모두 빙설로 꾸며지니 環宮瑤臺와 玉海銀山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각자 학습 활동이 끝난 후, 교사는 비슷한 모습의 사진을 통해 각자 그린 그림의 분위기와 비교해 보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림에 의한 상상의 고정 내지는 축소화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상상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 후, 답을 알려주며 그림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

<면앙정가> 자연 경치 감상의 기저에는 ‘각 개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 모여 그 아름다움이 총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송순이 지은 시조에 드러난 대상은 나열만 되어있어서 자연물의 모습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고, 단지 분위기 형성에 도움 주는 역할을 한다. 시조와 가사의 대상을 표현하는 차이를 학습함으로써 가사의 대상 형상 방법이 여러 심상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아래와 같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겠다.

※다음 송순의 시조와 <면앙정가>의 일부분입니다. 각 대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시조】

잘새는 느라 들고 새들이 도다온다
외나모 드리로 홀로 가는 저 禪師야
네 절이 옛매나 ㅎ관되 遠鐘聲이 들리느니

【면앙정가】

흰구름 브흰 煙霞 프로니는 山嵐이라.
千巖 萬壑을 제 집으로 사마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의 썬나거니 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斜陽과 섯거디어 細雨조츠 뿌리는다.

1. 시조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아봅시다.
2. 시조와 면앙정가에 나타난 대상을 각각 찾아봅시다.

시조	면앙정가

3. 시조의 대상 중 감정이 드러난 대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각각의 감정도 적어 봅시다.

⇒

4. 가사의 대상 중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구절을 적어봅시다.

⇒

5. 3,4를 참고하여 두 작품이 대상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

이 시조는 황혼 무렵의 풍경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앞의 가사부분과 동일한 시간적 배경을 가진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즉, 시조에는 대상의 구체화된 표현이 없다. 묘사의 본질은 개별성의 표현에 있는데, 시조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다. “잘새·새들·외나모다리·禪師·절·遠鐘聲” 등은 단순한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 시조의 여러 대상들은 이 시조의 ‘황혼의 정적’이라는 전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소재로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²²⁾ 대신, ‘홀로 가는 저 선사야’는 구절에서 ‘禪師’는 감정이 입이 된 대상이다. 홀로 가기 때문에 외로운 ‘禪師’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면앙정가>에서는 각 대상들에 감정이 들어간 경우가 없고, 대상들의 움직임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가사’와 ‘시조’의 대상 차이를 이해하고 대상 차이를 통해 형식의 차이까지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런 점에서 학습자들이 ‘강호’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가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학습자들은 <면앙정가>의 묘사를 ‘수필’의 묘사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22) 최진원, 「강호가도연구」, 『국문학과 자연』, 성대 출판부, 1981, 76~80 참고.

도 있다. 그러나 <면앙정가>의 묘사와 ‘수필’의 묘사는 확실히 다르다. <면앙정가>는 ‘면앙정과 면앙정 주변의 자연 모습, 사계’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압운, 열거와 대구’ 같은 시어의 음악성이 묘사의 표현 방법과 동반된다는 점에서 ‘수필’의 묘사와 다른 ‘가사’의 음악적 묘사를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 ‘수필’의 묘사 부분을 이용하여 학습 활동을 짜 볼 수도 있겠다.

이제까지 살펴본 <면앙정가>의 ‘작품론적 측면’의 교육 요소는 다른 작품에 뒤지지 않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언어로 인해 문학성이 드러나는데, 잘 다듬어진 시어와 능숙한 표현 솜씨 그리고 우리 고유어를 멋스럽게 풍부히 사용한 점, 구절마다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묘사와 열거의 방법을 이용한 점 등을 통해 음악성, 형상성²³⁾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면앙정가>의 두드러지는 점은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이 각각 나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에서 잘 조화되어 나타나 노래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즐기는 학습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라는 것에 있다.

2. 문화론적 측면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시도 문화의 한 특별한 양식이다. 더구나 가사는 우리 전통적인 문학 갈래로서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사상, 체험과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가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익히고, 선인들의 정

23) <면앙정가>에서는 함축성이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문화론적 측면’에서 화자의 자연관을 배우는 곳에서 언급 될 것이다.

신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우고,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문화교육의 의의는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은 선인들의 얼이 드러나 있는 각종의 문화를 재경험해 봄으로써 체득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학교에서의 문학 작품 교육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능력을 통해 민족성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런 취지로 <면앙정가>의 ‘문화론적 측면’의 교육은 송순이 작품을 창작했던 시대와 송순의 일생을 알아보는 학습을 하고, <면앙정가>에 드러난 화자의 자연관과 조선 후기 가사에 드러난 자연관을 비교하여 선조들의 자연관에 대한 학습을 한다. 그리고 그 시대 문화의 일면이며 이 작품에 영향을 준 조선시대 누정 문화에 대한 학습까지 포함하며 세 측면으로 ‘문화 교육’을 꾀하고자 한다.

1) <면앙정가>의 생성배경 이해하기

<면앙정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론적 측면’의 교육은 작품 창작의 시대적 배경, 화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교사의 일방적 전달보다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사전에 조사해 와 발표하는 수업이 더 효과적이다.

조사해 온 내용을 발표 할 때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한 범위 안에서 발표 할 것과 짧은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교사가 사전에 자세히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자료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자료의 선정 범위가 넓으면 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습자들이 한 곳에서만 그 내용을 복사하여 내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교사는 이 모든 주의점을 모두 평가

에 반영하여 과정 평가의 척도로 삼을 수 있겠다.

<면앙정가>의 생성 배경을 학습하는 이유는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작품 자체의 이해를 위해서이다.

먼저 송순의 일생을 알아보는 【조사지 1】의 활동은 <면앙정가>가 작가의 감정을 시 속의 화자와 객관물을 통해 드러내는 ‘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고전 시가인 가사는 작자와 화자가 동일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작품 이해에 앞서서 화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 속의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조사지 1】 송순의 일생

모둠명:	조사 방법 : 관련 서적, 인터넷, 인터뷰
조사할 주제 : 송순의 일생을 조사해 봅시다.	
발표에 사용할 매체 :	
<p>▶ 송순은 성종 24년(1493)에 전라도 담양부에서 태어나 선조 15년(1582)까지 살다 간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림과 문인 관료였다. 송순은 10세 무렵에는 송흠에게, 21세 안팎에는 박상과 박우에게, 26세 때에는 송세림에게 배워, 중종 14년(1519) 27세 때에 마침내 金榜에 올랐다. 정서적인 감화는 송흠에게서 받고, 뜻을 세워 그의 문장이 크게 이룩되기는 박양과 송세림에게서 배웠는데, 이 스승들 중 그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박양이다. 그는 조광조에게서 배우고, 조광조는 김굉필에게서, 김굉필은 김종직에게서, 김종직은 길재의 학통을 이었으니, 이 繼統은 우리 나라 사림의 정통적인 맥이다. 송순은 기묘사화가 일어나던 1519년 조광조, 김구, 김식, 남곤 등에게 발탁되어 중앙정계에 등장하였는데, 젊은 시절에는 주로 예문관, 홍문관 등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50세 즈음부터는 지방관료 생활을 하였다. 벼슬살이를 하면서 김안로가 정권을 잡고 있던 때에 채무택, 허항 등에게 배척을 당하고</p>	

결국 1533년 김안로가 권세를 장악하게 되어 세상이 어지러우니 송순은 분연히 그 불의를 면전에서 통박하였다. 그 후 송순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亞聖의 뜻을 받들어 ‘면앙정’을 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중종 32년(1541)부터 윤원형이 세력을 잡으면서 황헌, 양연 등에게 견제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58세(1550) 때에는 이기, 진복창, 이무강 등의 모함으로 충청도 서천에 잠시 유배당하기도 하였다.

송순의 문학은 가사 <면앙정가>를 비롯하여 한역시조 22편과 한시 580여수가 있다. 국문시가의 창작 시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의 문학의 대부분은 16세기 전반기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조사지 2】는 ‘면앙정’ 설립이 동기를 알아보고 ‘면앙정’과 관련된 사진을 찾아 간접적인 기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자료 찾기이다. <면앙정가>가 탄생한 곳이며, 시의 공간적 배경인 ‘면앙정’의 설립 동기는 작가 송순의 자연관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과 정자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는 참고할 책을 미리 알려주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찾도록 지도한다.

【조사지 2】 ‘면앙정’ 설립의 동기와 사진 찾기

모듬명:	조사 방법 : 관련 서적, 인터넷
조사할 주제 : 송순이 <면앙정가>의 중심배경인 ‘면앙정’을 짓게 된 동기가 기대승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동기를 찾아보고, ‘면앙정’의 사진도 찾아보자.	
발표에 사용할 매체 :	
▶ 송순이 기대승에게 면앙정을 짓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공이 나(기대승)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정자가 세워지기 전에 꼭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일찍이 금어옥대를 한 선비가 그 위에서 모여 노는 꿈을 꾸고는 장차 그 집안이 흥성하여 그 자손이 그 꿈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네. 그리하여 중에게 의탁하여 글을 배우게 하였으나 성공치 못하고 곤궁하게 되자, 그 곳의 나무를 베어 버리고 거처를 옮겼네. 내가 甲申年(1524, 중종 19)에 돈주고 이 곳을 사자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몰려와서 축하하기를 ‘이 기이하고 뛰어난 땅을 공이 얻었으니 아마도 꼭씨의 꿈이 조짐한 것일 것이다.’라고 하였네. 나 역시 내와 산의 경치를 아끼나 관직에 매여 조정에 있느라 감히 몸을 이끌고 물러나지 못하였네. 癸巳年(1533, 중종 28)에 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비로소 초정을 엮어 바람과 비를 가리우고는 5년 동안 한가로이 놀았네. 그러다가 곧바로 다시 버리고 가니, 정자는 비바람을 면치 못하였고 나무 그날만 너울너울 풀과 쭉대만 무성하였네. 庚戌年(1550, 명종 5)에 관서로 유배 가서는 두렵고 근색하여 온갖 일을 껴넘치 않았으나, 오직 정자를 수리하고 그곳에서 늙지 못함을 한으로 여겼다네. (...중략...) 집이 대강 완성되자 숲이 더욱 무성해졌네. 내 여기서 소요하고 면앙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으니 나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네. 아! 내 이곳에 자리잡은 지 지금 30여 년이 되었건만 인사의 득실은 진실로 말하기 어려우니 정자가 무너졌다가 세워진 것 또한 운수에 달린 듯하네.²⁴⁾

※면앙정 사진 제시

【조사지 3】은 <면앙정가> 창작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는 학습이다. 강호가 사군의 출현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사회로 조정의 어지러움에 염증을 느끼거나, 세력이 약한 지방 사림으로 정계에 진출

24) 奇高峯, 「俛仰亭記」, 『면앙집』 권7.

하기 어려워 강호 속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도로 일군의 ‘강호가사’류가 쓰여졌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면앙정가>의 창작 시대를 이해하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강호가사가 쓰여졌는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래의 <면앙정가> 창작 시대 특징을 찾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범위에서 찾아오도록 시킨다.

【조사지 3】 <면앙정가> 창작 시대의 특징

모듬명:	조사 방법: 관련 서적, 인터뷰, 인터넷
조사할 주제 :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16세기 초의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해 봅시다.	
발표에 사용할 매체 :	
<p>▶ 16세기 전반기는 재지사족들이 성리학적 교양과 실천으로 향촌사회에서 성장하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 사림과와 결집하며 세력을 신장해 가던 시기이다.</p> <p>한편 이 시기는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 조선사회 체제가 정비되어 가기 시작하는 무렵이기도 하였다. 사림과와 재지사족들에 의해 주도된 향촌 개혁 운동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재지사족이 군현 단위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결집하여 그들 중심의 사족 사회를 이루어 나가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족의 결집체인 鄕會나 留鄕所를 통하여 향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여 통제하였으며, 군현 단위로 부과되는 부세의 징수 과정에 관여하고 이를 감독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세력을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지사족의 향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향안이 이 무렵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송순의 집안도 이 무렵에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즉,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는 향촌 사회에서 재지사족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사림과 지식인들이 향촌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창작했던 “오륜가”는 이러한 시대적 기운 아래에서 향촌 사회를 재지 사족의 주도하에 성리학적 질서가 관철되는</p>	

질서 체제로 재편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아래 【조사지 4】는 면양정과 관련된 현대의 글을 찾아봄으로써 면양정의 감상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쓴 글은 학습자에게 쉽게 다가가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면양정을 답사한 기행문이나 관련시를 인터넷이나 시집, 서적 등에서 찾아보아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읽어줄 수 있겠다.

【조사지 4】 ‘면양정’ 답사 기행문이나 시

모듬명:	조사 방법: 관련 서적, 인터넷
조사할 주제 : 면양정을 답사한 기행문이나 시를 찾아보세요.	
발표에 사용할 매체 :	
<p>기행문 1 <면양정에 올라 보니....> 2002년 10월 10일. 송재건 면양정 답사 전에 대나무밭을 특별하게 조성한 별로 볼 것 없는 ‘테마공원’이라는 곳을 한 바퀴 돌고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대잎주’라는 이 지방 특주인 소주를 처음 마셔 보았다. 맛이 담백하고 순하여 마시기가 좋아 6잔이나 마셨더니 속이 얼얼하며 취기가 들었다. 오늘의 첫 번째 답사지인 정자‘면양정’앞에서 버스를 내렸다. 그런데 정자 올라가는 길이 왜 이리도 힘든가. 정자로 올라가는 길이 험난한 것이 아니라 난감했기 때문이다. 대충 100여 개(확실한 계단 수는 모름)로 된 돌계단이 어찌나 경사도가 급한지 웬만한 노약자들은 올라가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가파르다. 근년에 만든 길이 분명한데 누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었나. 정말로 한심하다. 우리 일행 중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노인이 한분 따라 오셨</p>	

다. 바로 경주박물관의 전 회장을 역임 했던 김원주 고문이다. 결국 이분은 안타깝게도 면양정에 오르지 못하셨다. 그 면양정에 올라 내 짧은 시심(詩心) 한번 꺼내 보려고 정자 마루에 앉아 풍광 좋다는 담양 들판을 바라보니 시심은 커녕 정자 턱 밑으로 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 왔다. 정자 안의 조그마한 방바닥에는 비닐 장판이 깔려 있었고, 정자 뜰 앞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된 커다란 비석 하나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비문을 보니 ‘면양정중수기적비’라 쓰여 이었다. 네모반듯한 비석이 불품없기는 말할 것 없고 그 생김새가 정자와는 조화가 안돼 이질감마저 들었다. 내 원 참, 문화재 관리님들의 문화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었다.

정자는 정자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정자 안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풍치가 아름다운 것이라 했는데... 이미 그런 정자 주변의 아름다움은 간데없고 정자만 덩그러니 서 있다. 정자 첫 번 답사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망가져 가는 담양의 정자문화가 한 눈에 보인다.

면양정은 송순의 호이다. 면양이 무슨 뜻일까? 면양 한문자로 俛仰이다. 俛仰이란 뜻은 ‘땅을 내려다 보고, 하늘을 본다’는 뜻이란다. 즉, 아무런 사심이나 부끄럼 없이 산다는 뜻으로 송순의 곧은 기개를 나타내는 말인데 송순의 맑은 마음이 이 면양정 정자에 깃게 배여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런 송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대 문명에 온갖 핏박을 받으며 면양정은 쓸쓸히 거기에 서 있었다.

다음엔 송강정으로 간다. 그 곳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았다. 면양정에서 느낀 실망스러움을 송강정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달래며 면양정을 떠났다.

출처:

<http://migiho.hihome.com/jsp/servlet/sunshine.board.Read?DocIndex=1229&userId=migiho&siteNum=1&pageNum=1&seq=5&Page=1&PageIndex=20&totalRows=35&Search=>

기행문 2- 〈면양정(倅仰亭)〉 25)

2001년 11월 24일. 김동준.

면양정은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정자다. 정자 앞으로는 내가 흐르고 있으며 계단을 따라 대숲 언덕을 올라가면 소나무에 둘러싸인 정자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면양정이다.

"이곳이 그 유명한 면양정이다. 교과서에서들 봤지? 송순이 면양정가를 지었던 곳이기도 하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자를 둘러봤다. 참으로 신기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곳이 내 눈앞에 있다니... 또한 그 유명한 송순 선생이 면양정가를 만들었던 이곳에 내가 있다니.... 상상하지 못한 행운이었다. 안내판을 보니 면양정은 전라남도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송순 선생이 이곳을 건립한 후 이황을 비롯하여 많은 강호제현들이 학문을 논하고 후학을 길러냈던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당대 시인들이 호남제일의 가단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얼마나 놀라운가!!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샅샅이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이 구절은 송순 선생이 면양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면양정가」의 일부이기도 하다. 또한 면양정 앞에 세워져 있는 비석에는 가사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면양정가」가 새겨져 있으며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게다가 면양정 뒤에 있는 큰 소나무는 송순 선생이 직접 심었다고 알려졌으며 제월봉 정상 부근에는 송순 선생의 무덤이 있다. 누구든지 이 면양정을 처음 본다면 마치 신선 이 사는 곳 같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만도 하다. 면양정가의 국문학적 가치를 따지기 전에 언젠가 내가 커서 세월을 뒤돌아 볼 시기가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면양정은 명소임에 틀림이 없다.

담양에는 더 많은 가사문학 유적지와 정자가 있는데 송강과 면양정의 자취를 느껴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했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일대를 살살이 돌아보며 세밀한 문학기행을 하고 싶다.

출처:

http://namdou.com/php/zboard/view.php?id=namdo_moonhak&page=1&sn1=&divpage=1&category=7&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asc&no=39

시1 - 면양정에서

강대실

댓잎 스치는

솔솔 바람 따라

죽림 속 끊길 듯 이어지는

가파른 돌각담 오르면

우람한 참나무 하나

연륜으로 우뚝 서

번져오는 잎의 향

사방 트인 정자

뒹마루 올라서면

발 아래 산천 아스라하고

눈앞 하늘 땅 가이없는데

강호제현 모여들어

유유자적하다

국사를 개탄하던 아픈 심상

뜨락에 아른거린다.

25) 이 외에도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답기」와 같이 ‘면양정’근처의 다양한 누정에 대한 기행 서적이 있다.

16세기 전반,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 송순의 문학관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현대에 본 '면앙정'은 교사가 직접 학습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각자 모둠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꾸며보았다. 이 내용은 지식 전달 교육밖에 없으므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내용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교사가 학습자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 주거나 보충 자료를 제시하여 중요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면앙정가>의 자연관 이해하기

문화론적 측면에서 <면앙정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아야 한다. 작자의 자연관은 그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 시대의 특징과 함께 송순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면앙정가>에 나타난 특징별로 교수-학습 활동지를 짜 보겠다.

<면앙정가>를 통해 송순의 '강호' 자연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작품 속 화자의 인식을 시상 전개 과정을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강호가사는 일반적인 시상 전개 구성을 지니고 있어서 조선 전기 강호가사의 특징을 구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사에서는 강호에 문혀 살게 된 까닭을 밝히고, 본사에서는 산수 간에 초옥과 정자를 짓고 밭을 가는 생활환경과 음풍농월하며 유유자적하는 경지를 읊고 결사에서는 강호생활의 만족감과 성은에 대한 감사²⁶⁾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다.

<면앙정가>의 구성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위와 유사하다. 1~6구까지를 서사, 7~143구까지를 본사로, 144~146구까지 결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26) 권정은, 「자연시조의 구성공간과 지향의식」, 서울대 국문학박사논문, 2004, 134쪽.

구성에 따른 구체적 자연표상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²⁷⁾

【표-면양정가의 구성】

서사	본사		결사
1~6구	7~143구		144~146구
名 名 山 峰	풍경 묘사		생활 묘사
	공간적 순서	시간적 순서	君 恩
	①②③④ 七水山山 曲 嵐	⑤ 四 季	

서사에서는 ‘면양정’이 있는 무등산과 제월봉의 광대함을 노래하며 시작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면양정’ 주변의 경치와 그 속에서의 감상, 생활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풍경묘사 부분은 공간적 순서와 시간적 순서에 따른 묘사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풍경묘사에서는 자연을 드러내기 보다는 관조하는 대상으로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즉, 면양정을 중심으로 한 외계의 현상과 함께 자신이 느낀 내면세계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묘경이었다면, 생활 묘사 부분은 이러한 강호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풍류생활이 펼쳐진다.²⁸⁾ 결사에서는 임금의 은혜로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노래한다.

이런 구성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여 <면양정가>에 드러난 화자의 자연관을 알아보는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시해보도록 한다.

① 서사에 드러난 화자의 기상

27) 이종건, 「면양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3, 128~136쪽 참조.

28) 문은정, 위의 논고, 170쪽.

<면양정가>에는 송순의 ‘기상’이 자연을 통해 드러난다.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그 문학적 표현이 고급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이지만 화자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관한 ‘자연관’이 이면적 의미이므로 이 곳에서 함축성과 연결시켜 교수-학습 시킨다.

※ 다음은 <면양정가>에서 화자가 주변 경치를 노래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연을 통해 화자의 기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无等山 흔 활기 뒤희 동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세쳐 와 霽月峯의 되여거늘
 無邊大野의 모습 짐작 흐노라

㉡ 일곱 구비 흙뒹움쳐 므득므득 버려논 듯.
 가운데 구비는 굽기 든 늘근 놓이
 선증을 곳 썩야 머리를 안쳐시니
 너르바회 우회
 松竹을 해혀고 亭子를 안쳐시니
 구름 툇 靑鶴이 千里를 가리라
 두 느리 버렸는 듯.

㉢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두로고 쏘즌 거슨 뒤희가 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곳는 듯 닛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플거니
 이츠러운 가운데 일흠 는 양흐야 하늘도 짓치 아녀
 옷득이 섯는 거시 秋月山 머리 짓고
 龍歸山 鳳旋山
 佛臺山 漁燈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든 것도 하도 할샤.

1. 화자의 기상은 자연의 기상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대상의 어떤 면을 통해 화자의 기상을 드러내는지 그 구절을 찾아보세요.

⇒ ㉠ : _____

㉡ : _____

㉢ : _____

2. 화자를 남성에서 조선 시대의 여성으로 생각하여 ㉡ 부분을 바꾸어 써 보세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써 보세요.

⇒

㉠의 화자는 ‘면양정’이 들어선 무등산의 기세를 광대한 시각으로 조명한다. 즉, 송순 자신의 세상을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기상이 들어있다.

㉡에서는 제월봉의 위치에서 드러나는 용의 심상과 날개를 편 청학의 심상은 면양정의 좋은 立地를 나타냈고, 용과 청학에 비유되는 면양정은 그 곳의 주인인 송순 자신의 대담한 포부와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6~17세기에는 누정이 주인의 지위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는 추월산이 머리를 이루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늘어서 그 웅장함과 경치를 뽐내고 있다는 부분으로, 면양정 주변의 산세를 묘사하면서도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산의 기

세를 통해 송순 자신의 기상도 높이기 위한 상징적 표현인 듯 하다.

즉, 화자는 자연 자체를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통해서 '면앙정'의 기상과 자신의 기상을 내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둘러져 있는 것은 산 같기도 하고 병풍같기도 하고, 한 폭의 그림같기도 하구나.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겨져 보이거나 가거나 머물거나 내 간장을 태우는 것이 꼭 나의 서방님 같구나.

이렇게 어지럽게 굴지만 유명한 듯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기상은 나의 서방님을 꼭 닮았구나.

우뚝하니 서서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추월산은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서방님 같고, 龍歸山 鳳旋山 佛臺山 漁燈山 湧珍山 錦城山은 그 아래의 나와 자식들 같구나.

2의 문제는 위 예문처럼 조선 시대 여성 화자로 설정하여 풍경을 그릴 수 있겠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남성 화자일 때와 차이를 지닐 수도 있고, 공통적인 요소만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자유롭거나 여성의 기상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임을 상기시켜 그 시대 자연 속에서의 호탕함과 유유자적하는 삶을 여성이 누리기 힘들었음을 지적해준다. 이를 통하여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던 강호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도 아울러 지니게 하는 학습이 될 수 있겠다.

② 본사·결사에 드러난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공존

<면앙정가> 전체를 통해 송순의 자연세계관을 알 수 있었다면, 다음 학습

활동지에 나온 본문은 송순이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강호가사’는 대부분 인간세계의 부조리함, 빈곤함 등을 이유로 부정하며 자연에 은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면양정가>는 그것과는 다른 인간세계와 강호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학습자들이 토론의 활동으로 본문 내용을 해석해 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을 통해서도 학습자 서로의 다양한 사고를 배울 수 있고,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작품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다음은 <면양정가>의 일부분으로, 화자의 강호 속에서의 생활을 읊은 자락(自樂)과 연음(驢飲)의 부분입니다.

【自樂 - 스스로 즐김】

人間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복름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즈란 뉘 쓸려뇨.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희라 슬흘소나.
오늘리 不足커니 來日리라 有餘하랴.
이 뵈희 안자 보고 저 뵈희 거러 보니
煩勞호 ㅁ음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썰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호 靑藜杖이 다 므되어 가노미라.

【驢飲 - 술을 마시고 연회함】

술리 너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블늬며 툃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지 소리로 醉興을 빙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읊프락 꼭람헝락 노혜로 소기니
 天地도 넓고넓고 日月 흥가흥다.
 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고야.

【君恩 - 임금에게 감사함】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이샀다.

1. 위의 부분에서 화자가 인간세계에 대해 언급 구절이나 인간세계를 나타내는 대상이 속한 구절을 각각 하나씩 찾아보세요.

【自樂 - 스스로 즐김】 - _____

【嚙飲 - 술을 마시고 연회함】 - _____

【君恩 - 임금에게 감사함】 - _____

2. 1번 문제의 구절을 참고로, 화자는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단절된 공간으로 보았는지 연결되는 공간으로 보았는지 토론해 보세요. (예시 토론 참고)

단절된 공간으로 본 이유	연결된 공간으로 본 이유

3.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연결된 공간으로 보는 입장일 때, 이 가사의 문학적 의의를 생각해 보세요.

⇒

▶(예시토론)

A : 이 시대의 자연은 인간세계와 대립적인 공간으로 많이 나타났지. 그래서 아마 <면앙정가>도 그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을 거야. ‘인간을 떠나와도 겨울 없다는 말’도 인간 세상에서는 정치싸움으로 바람 잘 날 없었지만, 자연속에서는 자연을 감상하느라 바빴다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 거야. 그리고 ‘벗지라 없을 소냐’하며 ‘벗’을 운운한 건 자연을 벗 삼아 놀겠다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다른 공간으로 본 거야.

B :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 시대 자연관이 대부분 그러했으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나누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면앙정가>에서는 그런 의식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강호가사 유형의 始發作이 아닌가 해. ‘인간을 떠나와도 겨울 없다’는 말을 한 이유는 그 만큼 자연세계도 인간세계처럼 볼 것 많고, 할 것 많다는 뜻이 아니겠니? 부정적 의미로 쓰려는 의도였으면 ‘인간을 떠나와도’처럼 같은 의미로 비교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아래의 ‘벗지라 없을 소냐’도 ‘블니며 튼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 가지 소리로 醉興을 부추긴다’는 다음 구절과 연결지어 보면, 혼자서 자연과 노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벗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켜게 하고, 몸을 흔들며’ 동시에 행해지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C : 나도 B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마지막에 ‘이 몸이 이렇굽도 역군은 이샷다’라고 하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드렸거든. 아마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은 다 임금의 올바른 정치와 그 은혜가 자연에도 뻗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본다면 화자는 인

간세계와 자연세계를 대립적으로 제시하려던 건 아니지 않을까?

【自樂】에서는 ‘人間을 떠나와도’라는 첫 구절을 통해 화자는 ‘인간세상’의 모든 일을 잊고 산 속의 생활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간세계와 견주어서 한가 할 수 없었던 자연 속에서의 삶은 청려장이 다 무디어 질 정도로 돌아다니며 자연의 興趣를 느끼고 自樂을 일삼는 삶이다.

조선 전기 문학 속 ‘강호’의 의미는 ‘인간세계’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자주 나타난다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인간세계’와 대비되는 공간이 아닌 몰아일체의 공간으로서 ‘강호’가 배경이 된다고 하였다. ‘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며 ‘인간세상’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 곳과 다른 세계라 하지도 않았다. 이 표현은 이전의 ‘강호시가’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송순의 〈면양정가〉는 인간 세상과 무관하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현 없이 자연에의 몰입을 추구한 초기의 작품이고, 이후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강호’의 가치관을 수립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嚙飲】부분에서는 우리 시가에서 자연의 흥을 돋우기 위한 ‘술과 음악, 춤’이 나타난다. 그 동안 화자는 부지런히 자연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배경으로 화자는 자신만의 연회를 펼친다. ‘술과 음악’을 통해 그 흥을 돋우는데 인간 세계의 ‘벗’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화자는 ‘강호세계’와 ‘인간세계’를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저 아름다움 ‘자연 속에서’ 좋은 벗들과 ‘자연을 느끼며’ 연회를 펼치는 것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인 것이다.

【君恩】결사의 이 한 구절이 〈면양정가〉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여러 문제가 되었다. ‘亦君恩’은 조선조 사대부가 노래하는 ‘강호가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전에는 이 부분으로 인해 송순이 ‘정계진출’

을 피하며 넣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송순이 관료로서의 생활을 모두 접고 은퇴한 60세에 지어진 작품임을 고려한다면, 앞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患이라는 유교적 관념을 나타내고자 하는 관용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강호의 삶은 그것만이 배타적으로 긍정되어야 할 유일한 생활방식이 아니라 임금으로 상징되는 다른 종류의 질서를 가진 세계, 즉 세속적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진 삶과 함께 긍정·찬양되어야 한다는 의미”²⁹⁾의 표현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즉, 송순은 이 유교 사상에 기반한 관용적 표현을 통해 인간 세계를 배척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게 구성한 것이다.

송순에게 자연은 독립된 선계이지만 이것마저 ‘인간세상’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임금의 통치를 기반으로 있는 공간인 것이다.

나 역시 내와 산의 경치를 아끼나 관직에 매여 조정에 있느라 감히 몸을 이끌고 물러나지 못하였네. …(중략)… 庚戌年(1550, 명종 5)에 관서로 유배 가서는 두렵고 근색하여 온갖 일을 패념치 않았으나, 오직 정자를 수리하고 그곳에서 늙지 못함을 한으로 여겼다네. (…중략…) 내 여기서 소요하고 면앙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으니 나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네. 아! 내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지금 30여 년이 되었건만 인사의 득실은 진실로 말하기 어려우니 정자가 무너졌다가 세워진 것 또한 운수에 달린 듯하네.³⁰⁾

29)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81, 176쪽.

30) 정재호, 「한국 가사문학의 이해 - 면앙정가의 구조」, 고대 출판부, 1998, 256쪽에서 재인용
(奇大乘, 「俛仰亭記」, 『면앙집』 권7)

이 기록에서 보듯이 송순은 나이가 들어 관직을 파하고 온전한 몸으로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람이라 하였다. 관료 생활을 하는 동안 온갖 사화와 유배 등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아 면앙정을 세워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유유자적 할 수 있는 것은 운수가 좋았던 탓이고, 그 운수는 '임금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면앙정가> 전체의 의미와 연결시켜 볼 때, 결국 이 작품은 '인간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그 연결로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속에서 아름다움과 그 생활을 호탕정회하게 노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복잡다난한 '인간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귀의했다는 점에서 이 시대 다른 '강호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가 기저에 깔려있음을 볼 수는 있다.

③ <누항사>와 비교하여 <면앙정가>의 자연관 이해하기

<면앙정가>는 조선 전기 강호가사의 대표적 작품이고, <누항사>는 조선 후기 강호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호가사는 현세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모든 것을 잊고 강호에서 빈이무원하며 살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 차이는 사회적 상황과도 연관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조선 전·후기의 강호가사 특징을 비교해 본다. 이러한 활동은 조선 전기 <면앙정가>의 특성과 송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 다음은 조선후기의 작품인 박인로의 <누항사> 일부분입니다. 아래 문제를 읽고 답하세요.

<누항사 현대어 풀이>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한 꿈을 꾸지도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 슬프게도 다 잊었도다.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리려무나.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근심 없이)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라.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하노라.

못 생긴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오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노라.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한 사발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의 어려운 생활을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노라.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을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 할 이가 누가 있
겠는가.
그 밖의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1. 이 시의 화자와 <면앙정가> 화자의 자연에 대한 태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
나요? 위 가사의 구절을 참고로 제시해 보세요.

⇒

2. 이 시의 화자와 <면앙정가> 화자의 현실적인 상황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요?

⇒

3. 두 가사의 화자는 유교적 삶을 추구하는데 <면앙정가> 결사 부분과 <누항사>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삶의 형태를 보이는지 써 보세요.

⇒

4. 같은 강호가사라도 자연에 처하는 입장이 다른데 작자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누항사>는 이덕형이 산촌 생활의 곤궁한 형편을 물은 데 대하여 박인로가 자신의 회포를 풀어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화자의 곤궁상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후기가사의 첫 작품으로 일찍부터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조선 전기에는 <면앙정가>처럼 자연 자체의 감상에 빠져 들지만, 조선 후기에는 <누항사>와 같이 자연은 현실을 피해 빈이무원을 펼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같은 조선시대더라도 작자의 상황과 시대의 변화로 자연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이런 두 층위의 강호가사를 비교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면앙정가>의 화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면앙정가>와 <누항사>는 자연을 벗어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점이 두 시가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앙정가>의 화자는 면앙정의 立地와 자연의 기상을 자신의 권세, 기상과 연관시키고 있으나, <누항사>의 화자는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될 정도로 가난하여 낚시대마저 빌려 자연을 즐겨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이다. 이 상이한 입장은 작가의 삶과 연관있는데 사회적인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반 지배 체제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士族 간의 내부 결속이 중시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리학적 이념을 중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령권을 견제하고 史族 세력의 힘을 약화시켰으며, 오륜 등을 통해 향촌 교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향촌 사회에서의 단합을 바탕으로 그들은 선조 초년에 이르러 정권을 획득하고, 사림의 중앙 정계 장악은 중앙 정치 내부와 향촌 사회 내에 영향을 미쳤다.³¹⁾ 송순은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자신의 힘과 역량을 자연 속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림 정치가 열리면서 향촌의 사족은 중앙 정계에 진출한 무리와 그렇지 못한 무리가 생겨나게 된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을 이런 측면에서 사족층 내부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 시기라 할 수 있다.

유력 사족은 향안을 만들어 자신들과 같은 사족이더라도 사회적 지위 면에서 자신들보다 떨어지는 하층 사족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향안에 들지 못한 하층 사족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유력 사족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계 진출을 모색하거나 성리학적 논리의 실천을 더욱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박인로는 빈이무원, 충, 효, 신의, 우애와 같은 성리학적 실천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강조하였다.

<면앙정가>와 <누항사>의 비교 학습을 통해 조선 전·후기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화자들의 자연관과 그 입장이 다름을 살펴보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입장은 개개인이 처해 있는 현실과 사회적 상황과 떼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입장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삶과 빈이무원의 삶 등 여러 입장이 있었음을 학습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수 있다.

31) 김정석, 「17세기 은일가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39쪽.

3) 16·17세기 누정문화를 통한 <면앙정가> 이해와 감상하기

문학은 포괄적으로 국어 문화의 일부이므로 문화적 맥락을 고려³²⁾하여 교수-학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학 문화가 어떻게 고전 문학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에서는 <면앙정가>라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알아보도록 한다.

누정 문화를 교수-학습 하는 것은 세계 문학 속에 드러난 문화의 차이를 배운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서양에도 ‘목가시’가 있었는데 서양은 목동을 중심으로 푸른 초원으로 대표되는 자연이 배경이 되었지만, 우리는 누정을 중심으로 누정 주위의 자연이 그 배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시풍이었던 ‘전원시’에 우리의 누정 문화의 특수성을 배워 우리만의 자연 이해, 활용이 어떻게 문학에 나타났는지 배울 수 있겠다.

‘누정’은 조선전기에 활발해져 근대, 일제침략기³³⁾까지 계속 이어져 온 우리 문화유산이나 누정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듯, 양반들이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는 공간으로서만 인식되어 있는 ‘누정’에 대한 올바른 학습은 <면앙정가>를 감상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누정’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그 형성이 가능했고, ‘누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단’에 대한 학습도 시킨다. ‘누정’과

3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2.국어」, 교육 인적 자원부, 2001, 313쪽.

33)

시기	고려이전(1392년 이전)	조선전기(1592년 이전)	조선후기(1860년 이전)	근대(1861-1900)	일제침략기(1900-1945)	해방이후	계
누정수	16	150	186	131	153	134	770
비율(%)	2.0	19.5	24.2	17.0	19.9	17.4	100

곽성기, 「호남지방 누정의 교육사적 접근」, 『교육연구 16』,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7, 33쪽.

‘가단’은 <면앙정가>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학습이다.

이런 의도에서 학습자들에게 누정과 가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시키는데, 이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여 풍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모둠 활동 시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학습 활동지에 밝히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 학습 활동이므로 미리 방학을 이용하여 가까운 ‘누정’을 찾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조사지 1,2】는 누정의 의미, 기능, 종류에 따른 사진 등을 찾는 활동이다. 사실 누각, 정자라는 단어는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은 누정을 TV나 마을 근처, 체험 학습을 간 곳에서, 여행 중에 자주 접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모양이며, 모양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이것을 알아가는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누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조사지 1】

모듬명:	조사 방법 :
조사할 주제 : 누정은 무엇이고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거기에 맞는 누정사진도 찾아봅시다.	
발표에 사용할 매체 :	
모듬원의 역할 :	

【조사지 2】

모듬명:	조사 방법 :
조사할 주제 : 누정의 기능은 무엇이였을까요?	
발표에 사용할 매체 :	
모듬원의 역할 :	

【조사지 3】은 전반적인 누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바탕으로 <면앙정가>의 배경인 ‘면앙정’의 모양과 기능을 알아보는 학습이다. ‘면앙정’의 모양을 찾는 것은 인터넷을 통하면 수월할 것이고, 그 기능은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도록 한다. ‘면앙정’은 누정의 여러 기능 중,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면앙정가>가 지어지게 된 배경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진을 제시해야 하므로 프로젝터나 파워포인트,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조사지 3】

모듬명:	조사 방법 :
조사할 주제 : ‘면앙정’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발표에 사용할 매체 :	
모듬원의 역할 :	



《면양정 내부》



《면양정 외부》

【조사지 4】는 가단에 대한 조사이다. 면양정은 자신을 수양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시문을 기르기 위한 곳으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가단의 형성과 가단이 남긴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가단이라는 생소한 어휘를 이해하면서 조선 시대 문인들의 시 작 활동과 향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다.

【조사지 4】

모듬명:	조사 방법 :
조사할 주제 : ‘가단’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그 중 면양정 가단에 대해서도 조사해 봅시다.	
발표에 사용할 매체 :	
모듬원의 역할 :	

송순의 문집을 보면 송순이 왕래하였던 누정이 약 70여 군데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양산보의 소쇄원, 김성원의 식영정과 서하당, 김윤제의 환벽당

등이 대표적인 곳들이다. 이들 누정들은 주로 무등산 북쪽 원효 계곡을 중심으로 산재하여 호남문학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³⁴⁾ 이렇듯 송순은 여러 누정을 다니면서 자연의 감상을 더하였음을 가르치고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원림으로 남아있는 소쇄원을 감상하도록 ‘면양정’과의 구조상·기능상 차이를 알아보는 학습 활동을 한다.

소쇄원은 누정과 다른 원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원림은 교외에서 동산(園)과 숲(林)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조경으로 삼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집칸과 정자를 배치한 것이다.³⁵⁾ 누정은 집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반면, 원림은 누정의 기능에 집의 기능까지 한데 아우르고 있는 귀거래의 실천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원림은 넓은 대지에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고, 그 건물들은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는 등 상징적 의미와 아름다운 자연 감상의 장소로 남아있다. 이 곳에 자주 드나들었던 송순의 자취를 따라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학습자들이 감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조사의 조사 방법은 역시 관련 서적과 담양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의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겠고, 특히 소쇄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사진자료도 풍부하게 찾도록 한다.

【조사지 5】

모듬명:	조사 방법 :
조사할 주제 : 소쇄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봅시다.	
발표에 사용할 매체 :	
모듬원의 역할 :	

34) 장선희·정경운, 「호남문학기행」, 박이정, 2000, 69쪽.

35)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2002, 2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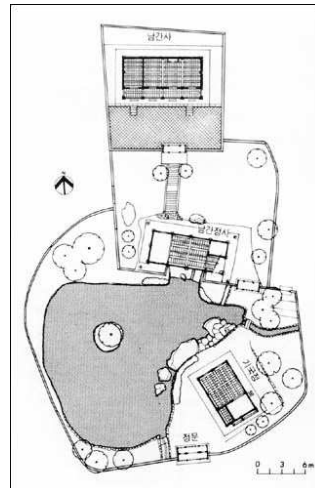
《그림 8 -광한루》



《그림 9 -송강정》



《그림 10 - 면양정》



《그림 11 - 송시열 남간정
사의 배치도》

누정은 樓閣과 亭子의 약칭이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에는 ‘~堂, ~臺, ~閣, ~齋, ~精舍, ~幹, ~廳, ~園, ~房’등의 접미사가 붙는 건물까지 범칭한 개념으로 일반화되어 있다.³⁶⁾

원래 樓는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벽이나 문을 두지 않고 높이 지은 다락식의 큰집이다. 정자 역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으로 된 것으로 樓보다 작은 건물을 두고 말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누정의 형태는 변이되면서, 그 쓰임에 따라 방 또는 제실등을 갖추는 누정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갖가지 이칭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樓와 亭이 지배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같은 조형물의 대표적 이름은 ‘누정’이라고 통용되어 버렸다 할 수 있다. ‘樓’는 2층으로 구성되어 아래층이 높이 떠 있는 전망용 건물을 의미하는데, 광한루가 대표적이다. ‘亭’은 자(子)자 자체가 작다는 뜻으로 원래의 의미는 사람들이 지나다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이다. 보통은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건물 가운데 1층으로 구성된 작은 건물들을 칭한다. 면양정이나 송강정 등이 그 예이다.

누정의 기능은 첫째, 은거를 하기 위한 곳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소쇄원을 들 수 있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스승 조광조의 올바른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왕의 무능과 주변의 무고에 의해 꺾이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며 후학들을 양성했던 곳이다. 둘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시문을 기르기 위한 곳으로서 기능했다. 대표적인 곳으로 면양정과 식영정, 송강정을 드는데, 조망성이 빼어나고 경관이 수려한 덕에 이 곳을 배경으로 <면양정가>, <면양정 30영시가>가 쓰였으며, 송강정 또한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정자이다. 이렇게 시를 쓰기 위해 가단을 형성하여 시를 짓고 쓰는 활동을 하였다. 면양정가단의 경우에는 이 가단을 출입하면서 시를 짓고 즐긴 수많은 동호인들을 볼 수 있는데, 송순을 비롯하여 林億齡, 梁山甫, 金麟厚, 朴淳, 高敬命, 林悌등이 그 대표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위대한 조상의 공을 기리고 그 얼을 이어받고자 후손들이 세운

36) 朴煥圭, 「光州·全南地域의 樓亭調査와 鄭澈의 樓亭題詠」 『어문논총』 제3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6, 83쪽.

곳으로서 기능한다. 넷째,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곳이었다. 산림에 은거하며 후학을 기르거나 동네의 젊은이를 기르기 위한 도장으로서 기능하였다. 다섯째, 농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곳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누정의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학소로서의 누정의 기능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리고 ‘면양정’도 ‘면양정가단’을 형성하여 詩作을 하고 공부하였을 정도로 강학소로서의 기능과 자연을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는 휴식의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가단’에 대한 학습을 시킬 때에는 ‘면양정’이 ‘호남가단’의 뿌리라는 사실임을 알고 ‘호남가단’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아야한다.

‘호남가단’이라 함은 16세기에 각종 사회로 인하여 정계에서 은퇴한 후 담양을 중심으로 일련의 누정을 만들어 놓고 강호자연을 벗하면서 詩書를 열고 풍류를 즐기던 유학자그룹과 그들이 활동한 장소(누정)를 함께 말한다.³⁷⁾ 그 시대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훈구세력에 의하여 지배되던 조선왕조는 성종 때부터 지방의 사림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종은 훈구 세력의 일방적인 비대를 막고 문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이들이 사림이다. 이들은 신유학으로서의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권문세족에 대항하여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비판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갔다.

조선 전기 정치를 주도했던 훈구파와 새로이 등장한 사림파와의 충돌이 사회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회라는 지식인 탄압에 분개하던 사림들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속에 빠지거나 부도덕한 권력에 휩싸이지 않는 지조를 견지하기 위하여, 세력을 이루며 경치 좋은 강산이나 산수를 찾아 정자를 짓고, 문우들과 어울려 사림정신, 즉 선비정신을 다졌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호남가단의 직접적인 형성배경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37) 李鍾珉, 「호남가단의 누정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1993, 2 쪽.

있다.³⁸⁾

문단·가단 할 때의 「壇」은 이것이 단지 ‘글을 짓는 장소’나 ‘시를 짓는 장소’의 개념 말고도 ‘문인들의 집단’, ‘시인들의 집단’이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조선시대의 「가단」은 일정한 장소와 주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하여 시가 활동을 펼친 것이 그 특색이다. 면양정가단도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여러 인사들이 출입하면서 시가를 짓고 풍류를 즐겼던 곳이기 때문에 가단이란 명칭은 정당하다고 본다. 가단은 면양정 가단처럼 면양정 한 곳을 지칭하기도 하고, 성산가단처럼 성산에 산재해 있는 식영정, 누하당, 환벽당, 소쇄원을 총칭하기도 한다.³⁹⁾ 이러한 「가단」은 대체로 풍치 좋은 명승지나 또는 여기에 세워진 누정을 중심무대로 한 것이 많은데, 이는 우리 선조들의 풍류 사상과 상통한다.

풍류 사상과 관련지어 누정의 건축미를 살펴보면, 그 건축은 사람을 압도하기 보다는 주위의 경관을 가장 잘 전망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조화를 극적으로 집약하는 장소에 조용히 위치한다. 그 곳에서 보이는 경치는 보는 이와 자연경관을 하나로 만들면서 시원한 감흥을 자아내고 나아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로 이끄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인공구조물인 정자가 자연경계 속에서 결코 눈에 거슬리지 않고 주변의 바위·소나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한국 누정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둠별 조사를 참고하여 학습자들에게 누정 기행 계획을 짜 보도록 하는 것은 학습을 경험으로 전이시키는 효과를 준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문화를 향유해 보아야 완성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학습자들은 간접적으로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다. 물론 사이버 여행이기는 하나 이런 활동이 직접 누정 문화를 접하고 싶다는 동기를 유발해 주게 되고, 위에서 배운 누정 문화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38) 李鍾珉, 위의 책, 13쪽.

39) 李鍾珉, 위의 책, 9쪽.

있다.

이 활동은 협동적 계획짜기 과제로 제시하여 교사는 수행 평가의 활동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소집단에서 학생들은 함께 여행하고 싶은 곳을 논의하고 그 목적을 세운 후, 관련 자료를 미리 찾아본다.

협동해서 글을 쓰다보면 학습자들은 어떤 것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그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소집단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태도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함께 계획하는 글을 써 봄으로 계획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다.

※ 모둠별 발표를 듣고, 누정 기행 계획지를 짜 보도록 합니다.

여행 일자 : ○○월 ○○일

여행 장소 :

여행하는 사람 :

1. 누정을 여행하는 목적을 논의하여 정해봅시다.

⇒

2. 여행할 누정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찾아봅시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합니다.)

⇒ 도움 사이트)

•담양군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가사 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damyang.go.kr/new/gasa/index.htm>

1) 여행할 누정은 누가 만든 것이고 그 동기는 무엇인가.

⇒

2) 여행할 누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진 자료를 찾아봅시다)

⇒

3) 여행할 누정의 위치와 그 건축 모양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4) 그 누정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시가를 찾고 감상해 보자.

⇒

5) 누정을 방문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6) 다음 글을 읽고 여행 중 누정의 감상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소쇄원의 아름다움도 밖에서 봐서 깨달을 것이 못 된다. 이곳의 주인이 앉아 있었던 곳, 이곳의 주인이 거닐었던 길에서 풍경을 바라봐야 제 멋이 나온다. 어떤 이는 비 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뜻을 가진 제월당에 앉아서 소소히 내리비치는 달빛을 바라볼 때 소쇄원의 참 멋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비 갠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광풍각에서 병그는 봄꽃을 바라볼 때 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통점은 정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자에서 세상을 관람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소쇄원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⁴⁰⁾

⇒

누정 여행 계획을 짤 때에는 여행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 활동은 소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짐으로 다양한 목적이 논의되고, 그 중 가장 적절한 목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여행 목적에 알맞은 누정을 선택하여 그 곳의 주인을 알아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정의 모양과 건축 의미 등을 먼저 알아보면, 직접 방문하였을 때 주인의 심정으로 누정을 잘 이용하여 자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행하는 누정에서 이루어진 시가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누정 주변의 자연물을 시의 감상으로 느낄 수 있겠다. 누정을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정자를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정자에 앉아서 주위의 자연을 구경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자연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위의 여행 계획 활동들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누정 문화에 대한 학습은 <면앙정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더 나아가 조선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줄 것이다.

3. 태도론적 측면

고등학교 국어과에서는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⁴¹⁾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미디어의 정보를 문학과 관련지어 경험의 확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내면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이다.

고전 문학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태도 학습은 첫째, 작품의 모든 것을 수

40) 이성수(시인), <http://www.britannica.co.kr/sam/culkr/cukr01.htm>에서 일부 발췌.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上』, 교육인적자원부, 2001, 8쪽.

용하고 계승하며 변용하는 것이다. 둘째, 수용·계승·변용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면화 학습이다. 이 두 과정은 독자와 수용이라는 문학소통의 문제이며, 문학 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면양정가>는 현재 대중문화 현상 중 하나인 ‘녹색 문화’⁴²⁾를 교수-학습요소로 뽑아 자연관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계승하는 과정을 현대 작품과 상호텍스트 비교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은 작품의 모든 것을 시대 변화에 따라 수용하고 계승·변용하여 학습자의 태도적 측면의 교육을 이루어낸다.

‘녹색 문화’의 하위 분야인 ‘녹색문학’이 현대 문학에서 점점 부각되고 있고 문학인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力說되고 있다. 문학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관심, 인간과 세계와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탐구 등을 이루어냈다. 이런 문학의 특성은 자연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는 ‘녹색 문화’를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녹색 문학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녹색 문학’을 교수-학습을 할 때에는 막연히 자연의 중요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제3세계적인 우리 현실의 특수성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생태학적 현실과 가능성은 서구와는 다른 면이 있으며, 단적으로 우리 자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 대한 기억과 그 보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점에서 배가된다.⁴³⁾ 따라서 자연에 대한 우리 현실의 특수성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특수성을 알았다면, 현대의 상황에 적용시켜보고 학습자 내면에 지적 인식과 감동이 남아 있어야 한다.

자연을 아름답게 바라보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예찬한 점에서 강호가사

42) 녹색문화도 문화론적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었겠으나, 현대적인 문화라는 점과 이 문화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내면화 시키는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태도론적 측면에서 다루도록 한다.

43) 윤지관, 「‘녹색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문학사상』, 1999.7, 105쪽.

<면앙정가>는 ‘녹색 문학’ 교수-학습의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이미 ‘작품론적 측면’의 교육에서 살펴보았다. <면앙정가>의 ‘녹색 문학’ 교수-학습의 방법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상호텍스트를 통해 시에 나타난 자연 인식의 변화를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과 대중 매체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자연 인식에 대한 토론과 자신의 입장을 밝혀보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이런 교수-학습 방법은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인식의 내면화’를 이루어 낼 수 있겠다. 이 결과는 ‘작품에서 다른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한다’,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⁴⁴⁾라는 문학 교육의 내용을 이루어 낼 수 있겠다.

1)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면앙정가> 이해와 감상하기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을 ‘태도론적 측면’에서 교육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로 계승·변형 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대표자로 김병국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강호가도를 낳은 심리적 근원은 크고 복잡한 세속적 사회로부터 작고 단순한 목가적 사회로의 귀거래적 소망이었다. 복잡한 문명의 삶으로부터 단순한 원시적 삶으로의 귀거래적 소망이야 인간 보편의 심리적 충동이지만, 이것이 특정한 시대 사회적 상황에서 일종의 ‘문화적 상징’이 되어 문학적으로 양식화된 것이 강호가도였다.”⁴⁵⁾ 라고 하면서 서양의 시 갈래의 하나였던 전원시를 예로 들어, ‘거기 구현되었던 목가적 이념 내지 정신은 오늘날까지 문학과 예술의 모든 장르

44)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 교과서, 2001. 311, 312쪽.

45) 김병국, 『한국 고전 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59쪽.

속에 특정한 서정 양식으로 상존 하고 있다.’⁴⁶⁾고 하였다.

우리 시를 예로 보았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은 16~17세기에 성행했던 ‘강호시가군’의 형식으로서 그 시대 문단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고, 근대의 전원시로 또는 서정 소설의 배경으로 이어져 현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 해 두고, 학습자에게 ‘시 속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계승과 변화’를 교육하여야 한다. 이 교육은 문학의 내용 중,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을 이해하여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초가 된다.

그 시대 ‘문화적 상징’으로서 문학적으로 양식화된 ‘강호가사’의 시발격이었던 <면앙정가>를 1930년대 ‘전원시’의 대표 시인인 ‘신석정’의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와 비교하여 일제 시대 우리 민족에게 자연은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리고 <면앙정가>에서 드러난 자연관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세워본다. 그리고 1960년대 대표 시인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아보는 교수-학습 방안을 만들어 본다. 이 두 작품의 선정 이유는 ‘신석정’이 1930년대 대표적인 전원시인으로서 자연을 배경으로만 하지 않고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는 1930년대 시대 상황이 담겨있기도 해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46) 전원의 풍물을 묘사하거나 목부의 생활을 이상화한 문학 작품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의 인생 태도 내지 정신을 가리킬 때는 ‘목가적 생활’, 또는 ‘목가적 이념’이라는 말로 쓴다.

김병국, 『한국 고전 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59쪽.

폐해가 잘 드러나고, 그 공간적 배경 또한 ‘산’이라는 자연이다. 그리고 고등 《국어 上》에 들어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작품이기에 선정하게 되었다.

<면앙정가>와 이 작품들 간에 비교 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우리 민족의 자연관’의 계승과 변화를 인지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한다.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간단히 말하여 텍스트간의 상호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처음 논의될 때는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내용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지만 많은 이론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복잡한 개념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할 것이다.

상호텍스트 교육이 국어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이러하다.⁴⁷⁾

첫째, 읽기나 문학을 지도할 때 단일 텍스트 내에 국한된 수업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읽기나 문학교육에 있어서는 주어진 하나의 텍스트를 완결된 형태로 여겨서 그 내용에서만 의미를 찾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다. 즉 텍스트들 간의 상호텍스트적 연결을 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텍스트를 통하여 얻는 지식의 확장은 단일 텍스트보다는 그 텍스트와 관련된 다른 텍스트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나 문학 그 외의 영역에서도 단일 텍스트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텍스트를 지도할 때 텍스트들 사이에서의 연결을 넘어서 개인의 경험과 사회문화의 영역으로 연결 관계를 넓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저가 말

47) 김도남, 「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국어교육적 함의」, 『한국어문교육』 9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0, 116~117쪽.

하는 텍스트의 간극을 메우는 활동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지식을 중요시하는 것이며, 반응중심의 문학교육도 같은 맥락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와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의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활동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텍스트 내용에 관련하여 다양한 장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국어 교육적인 면에서 텍스트를 다룰 때 단일 장르를 중심으로 영역을 갈라놓으려는 노력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장르에 대한 인식이 텍스트의 이해나 생산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다양한 접근을 방해한 면도 있다. 한 주제에 대하여 생산되었거나 생산할 수 있는 장르적인 방식은 다양하다. 이런 장르의 벽을 열어 놓음으로서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면에서의 이해와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장르적인 영역의 확장은 이해와 표현을 위하여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활용해야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면앙정가>와 근·현대시의 상호텍스트 교수-학습을 통해 지식의 확장과 전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① 1930년대의 ‘자연관’과 비교·이해

신석정은 식민지 시대에 ‘자연’을 배경으로 이상향을 그리는 목가적 서정시를 많이 써 김동명, 김상용과 함께 전원시인으로 불리었다. 그는 암울한 시대상황에 대한 강한 거부로서 초월적이고 본원적인 실재를 찾았다. 그 실재는 자연 속에 있었고, 일제 시대의 자연은 이상향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자연에 대한 현실이 신석정의 시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고십니까?>에 잘 드러나 있고, <면앙정가>와는 ‘자연을 통한 추구’인가, ‘자연을 향한 추구인가’로 그 차이를 교수-학습 할 수 있겠다. 두 시를 통해 우리 전통의 자연관이 1930년대를 기점으로 바뀐 자연관을 학습해 보도록 한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고십니까?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깊은 산림 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산비탈 너즈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차분하고 쓸쓸한 분위기

평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또옥뚝 따지 않으렵니까?

1. 이 시의 ‘그 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구를 바탕으로 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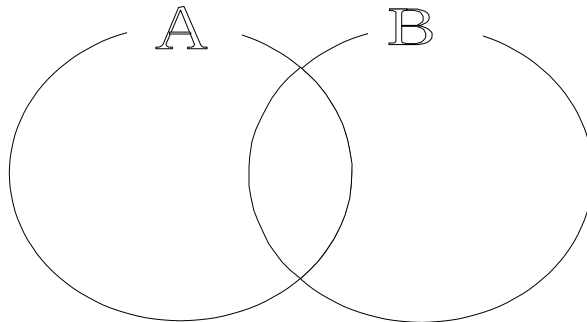
2. 이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적 상태를 모두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서가 <면앙정가>에 나타난 정서와 공통적인지 차이가 있는지
벤 다이어그램 속에 나누어 제시해 보세요.

⇒ 이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 면앙정가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즐거움, 편안함, 호탕함

《면앙정가와 시의 정서 구분하기 A=면앙정가, B=위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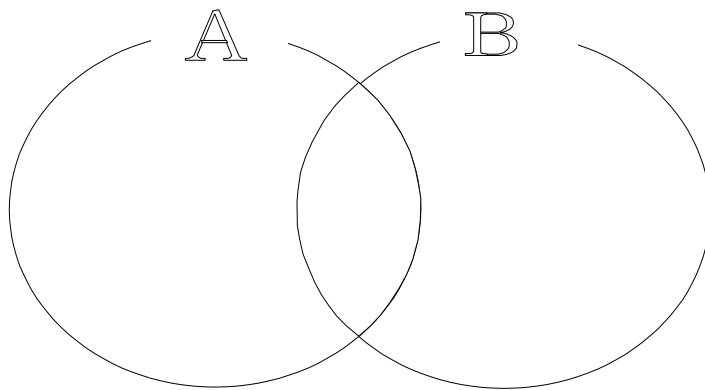


3.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자연에 대해 위와 같은 정서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써 보세요.

⇒

4.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고십니까?>와 <면앙정가>의 자연관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비교해 봅시다.

⇒ <면앙정가>의 자연관 : 아름답고, 우뚝한 기상이 있고, 여유로움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순수의 공간이면서, 자신의 뜻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공간



이 학습의 주요 내용은 비교·대조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먼 나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이다. 시 자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그 먼 나라’는 자연이 될 것이나 시인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곳을 화자는 어머니와 함께 ‘비둘기를 키우고,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오며, 새빨간 능금을 또옥뚝 따는’ 현실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이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가함, 여유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쓸쓸함과 외로움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면앙정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정서이다. 자연이란 순수의 공간이면서, 자신의 뜻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면앙정가>와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면앙정가>의 자연은 아름답고, 우뚝한 기상이 있고, 여유로움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의 자연은 쓸쓸함, 외로움 등이 묻어나 <면앙정가>처럼 완전한 공간이 아니다. 시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신석정 시에 나타난 순수한 공간으로서의 자연은 환상의 세계라 할 수 있겠다. 일제하 암흑기의 시인들에게 순진무구한 자연이 영원히 상실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워하는 공간으로서만 자연⁴⁸⁾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일제 시대에 김형규가 쓴 <고향>이라는 수필을 통해 그리워 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고향은 생각해 무엇하리/ 일가 흩어지고/ 무너진 옛 집터에/
낙엽지는 저녁/ 까막까막 울고 가는/ 고향은 생각해 무엇하리.

어슴푸레하게 기억을 더듬어 적어 본 이 시구가 20여 년 전 어느 사범 학교서 학생들에게 적어 준 시의 한 구절이다. 이것은 아마도 파인(巴人)의 시가 아니던가 생각된다....(중략)...

어린 시절에 자라고 커지는 몸을 길러 주는 곳이 고향일 뿐 아니라, 우리들 마음과 느낌에 피와 살을 주어 부풀고 자라게 하는 것도 고향 산천인 것이다. 앞산의 진달래 꽃과 나무 그늘, 그리고 온갖 열매를 맺어 주는 고향 땅 흙냄새는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키워 주고, 바위 틈새 맑은

48) 이 때의 자연은 잃어버린 고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잃어버린 고향은 시적 청자인 ‘어머니’를 통해 일깨워 지고 있는 것이다.

흐름과 무한대의 푸른 바다 물결은 우리에게 느낌을 물결쳐 쉬지 않고 흘러가게 해 주었다. 그리고 보면, 내가 자란 내 고향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더구나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던 바다 물결은 아직도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1930년대 자연은 고향의 이미지와 동격일 만큼 순수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이 점은 <면앙정가>의 자연과 같으나, 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면앙정가>와는 다른 이 시대의 자연인 것이다.

김병국은 이런 의미에서 ‘강호가도의 목가적 세계는 자연을 매개로 한 환상인 데 반하여, 1930년대의 목가적 세계는 환상을 매개로 한 전원 내지 자연인 셈’이라 하였다. 즉, <면앙정가>의 배경인 자연은 실재하여 그 속에서의 삶이 가능하나,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고십니까?>의 배경인 자연은 환상 속에서 나온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두 시의 비교를 통해 ‘자연’이라는 공간은 순수의 세계이고, 여유와 세계라는 점, 그리고 자연으로의 귀의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고전 속의 ‘자연’은 존재하여 그 속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였다. 그 가능성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이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고 자연을 통해 인간 세상에서 얻은 상처가 치유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자연’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그 속에서의 이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였고, 그 불가능으로 인해 ‘인간의 상실’과 그 상실의 치유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② 1960년대의 ‘자연관’과 비교·이해

1930년대의 ‘환상을 매개로 한 자연’의 의미가 1960년대부터는 다시 ‘자연을 매개로 한 환상’으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

기>는 산업화·도시화·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상황을 제시하여 그로 인해 인간성도 상실해 간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연’이 인간의 순수성을 지켜 주는 곳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면앙정가>와 같은 고전으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아름다운 공간, 여유로운 공간, ‘道’를 이룰 수 있는 공간, 현대에는 자유·순수의 공간으로 ‘자연’은 계속 그렇게 작용해 온 것이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성북동 비둘기>를 <면앙정가>와 비교하는 학습을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데, <성북동 비둘기>는 학습자들이 이미 『국어 上』에서 배웠으므로 그 내용을 학습하는 것보다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어 학습 활동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획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1. 이 시의 자연은 어떤 상태입니까?

⇒

2. 이 시의 화자는 ‘비둘기’를 통해서 자연의 의미를 나타낸다. 화자는 자연을 어떻게 보았는지 ‘비둘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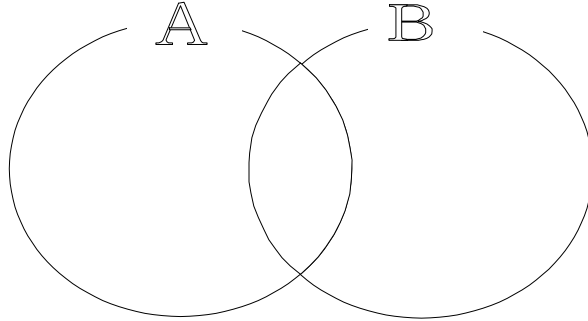
⇒

3. 이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가 <면앙정가>에 나타난 정서와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벤 다이어그램 속에 나누어 제시해 보세요.

⇒ 이 시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 면앙정가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즐거움, 편안함, 호탕함

《면앙정가와와의 정서 구분하기 A=면앙정가, B=위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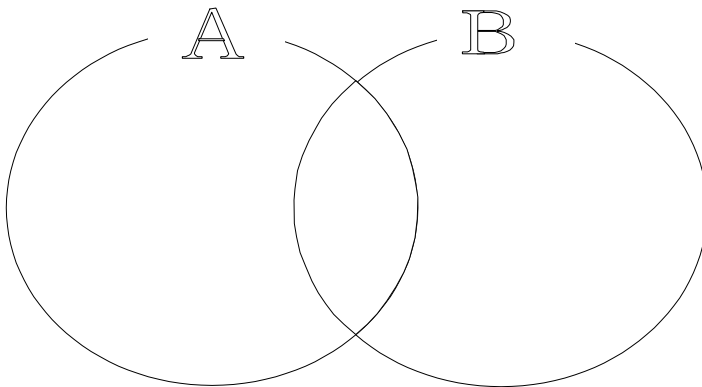


4.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자연에 대해 위와 같은 정서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써 보세요.

⇒

5.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성북동 비둘기>와 <면앙정가>의 자연관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비교해 봅시다.

⇒ <면앙정가>의 자연관 : 아름답고, 우뚝한 기상이 있고, 여유로움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순수의 공간이면서, 자신의 뜻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공간



6.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예를 써 보세요.

⇒

7. 5,6의 답을 바탕으로 각자 어떻게 자연을 이용해야 할지 써 보세요.

⇒

이 시의 자연은 인간의 문명 발달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다. 비둘기의 번지를 없애고 비둘기를 자연으로부터 쫓아버리는 상황까지 만들고, 새벽부터 들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가는 산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비둘기를 통해 자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임을 통해 자연도 그러한 공간으로 보았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 사랑과 평화를 주던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지금은 달라져 인간에 의해 평화와 사랑, 축복의 공간이 없어지는 안타까움과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의 자연은 <면앙정가>의 자연과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면앙정가>는 자연 공간 자체를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기나, <성북동 비둘기>는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 편리에 의해 자연 공간을 파괴하는 변형을 통해 즐기고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앞으로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60년대 산업화 사회와 같은 경우가 요즘에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산을 깎아내고, 폭파시키며 주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아무런 생각 없이 훼손시키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던가 골프장 건설 등이 있다. 이런 자료를 교사가 준비하여 학습자들에게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도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다행히 60년대와는 달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커져 반대 운동이나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연을 이용하려는 등의 노력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모습도 같이 제시하여 주면 효과적이겠다.

<면앙정가>와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제약이 없어진 요즘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즐겨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겠다. 이 활동은 아래에서 살펴 볼 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현대의 자연을 파괴·변형을 통해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교수-학습 하여야 하겠다.

2) 학습자의 자연관 내면화 활동하기

내면화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를 말한다. 그리고 도덕적 설교나 윤리의 교육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감동을 통한 보이지 않는 가치의 내면화를 지향한다. 내면화란 어떤 가치관이 암기된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이해되고 감동되어 행동의 변화까지 기대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오늘날의 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의 내면

화는 감동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나아가 삶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의 확장을 가리킨다.⁴⁹⁾

<면앙정가>는 송순이 면앙정 주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시가이다. 이 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자신의 관점에서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를 지닌다면 작품을 통한 내면화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학 교육 내용 중에 문학 활동으로 얻어진 인식적, 미적,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삶에 투사하여 세계관을 넓히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교육내용이다. 문학 활동의 목적은 개인 삶의 질을 고양하고 공동체의 문학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 결과를 내면화하여 삶의 다른 영역이나 차후의 활동에 재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내면화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성 교육, 교양 교육과 관련하여 문학 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내면화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문학 작품의 가치를 보편 가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작품의 가치를 재구성하기, 작품이 제기한 가치를 내면화하기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학 활동을 일상적 경험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작품이 다른 가치가 자신의 삶에서 지니는 의의를 탐색하며, 토의·토론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⁵⁰⁾

따라서 앞서 한 중세·근대·현대의 자연 의미를 토대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글쓰기나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자연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49) 한철우 외 8명, 「고등학교 문학 下 교사용 지도서」, 문원각, 2002, 17쪽.

50)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2 국어」, 대한 교과서, 2001, 311쪽.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보호, 보존해야 할 공간이면서 그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보존하고, 즐겨야 할지 교육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대부분 방송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는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교육하지 않는 것은 자칫 뻔한 이야기로 무의미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다는 식의 생각으로 교육하지 않고 방치했으나 자연을 아끼고,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을 다룰 때,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상, 내면화까지 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면앙정가>를 어떻게 ‘태도론적 교육’의 방향으로 끌어 갈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작품론적 교육, 문화론적 교육’이 ‘태도론적 교육’의 기본 바탕 지식이 되고, 시대 흐름에 따른 우리 민족의 ‘자연’ 의미도 역시 그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자연에 대한 생각과 자연을 어떻게 향유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끌어내고,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토의하거나 글로 쓰거나 모방하는 식의 방법으로 내면화 시킨다.

① 글쓰기

기본 텍스트와 반대되는 작품을 읽고 글쓰기를 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사고과정이다. 능동적인 읽기는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데, 이 둘의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학습 내용을 내면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면앙정가>와 이상의 수필 <권태>의 일부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글을 써 보는 활동을 시킨다. 한 대상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는 텍스트간의

비교를 통해 개개인은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 자신이 그런 입장을 따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상황이 자신의 자연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자연을 생각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 지금까지 배운 <면양정가>와 아래 ‘이상’의 수필 <권태>중 일부를 비교하여 자연은 여러분 각자에게 아름다움과 권태 중 어떤 의미를 주는 지 생각해 보고, 글로 써 봅시다.

「권태」 - 이상

어서-차라리 어둠 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東)에 팔봉산(八峰山),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별관, 북을 보아도 별관, 아-이 별관은 어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였을꼬? 어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나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빠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더웁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더웁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 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별관,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았댔자 결국 치열(稚劣)한 곡예의 역을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본다. 지구 표면적의 백분의 구십 구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 말로 너무나 단조 무미한 채색(彩色)이다. 도회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漂着)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닷새가 못되어서 이 일망무제(一望無際)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퍼러나. 하루 온종일 저 푸른 빛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 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겸손이나.

풍경이 권태 그것인 것같이 권태 그것인 것같이 권태 그것이다.

⇒ _____

이상의 <권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 글에서도 이상의 모더니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도시적인 사고와 감성으로 시골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볼 수 있다. 그는 자연 묘사를 순수하고 아름답고, 道를 지닌 이상적인 세계로 그렸던 전통적인 자연과는 정반대로 그리고 있다. 농촌의 아이들을 ‘천치’, ‘불쌍하다’, ‘답답하다’고 표현하고, 농촌의 일상사를 하찮은 것으로 표현하고, 주위의 자연은 지루하리만큼 초록색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며 자연의 권태와 농촌의 권태로움을 연결시켜 부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이상의 현실적인 처지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제의 수탈 하에 죽도록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농사만 짓는 농촌 사람들의 모습과 그로 인해 그 주위의 자연을 느껴볼 여유도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하기 위했던 것이다. 자연을 즐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항상 똑같고, 권태로운 장면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의 수필 <권태>에 드러난 자연이라고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자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안다면, 학습자들은 이 텍스트를 읽고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하려 할 수도 있지만, 교사는 자연이 그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면앙정가>의 화자처럼 자연을 즐길 줄 아는 마음 상태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되어야 자연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② 토의하기

토의식 수업은 학습자들 간에 정보나 아이디어, 의견 등을 나누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과정이다. 토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으로서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요구하는데, 창의성과 자발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태도 및 기능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토의가 가능한 주제의 특징은 실제로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제여야 하고, 시의성이 있는 문제라야 한다. 만약 <면앙정가> 작품 하나를 가지고 현대 학습자들의 자연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을 토의해 보자고 하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우리의 상황을 통해 생각해 본 후, <면앙정가>에 나타난 선조의 자연관과 연결지어 더 나은 자연관을 찾아본다면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다. 또, 토의할 문제는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자연에 대한 입장을 토의를 통해 각자 마련한다면, 그것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짜 보는 활동도 필요한 것이다.

다음 토의 자료는 현대인의 歸自然 생활을 취재·방영한 TV다큐멘터리이다. 이 자료⁵¹⁾는 2005년 1월에 5부작으로 방영된 것으로 한 편만 보여준다면, 약간의 편집과정을 거쳐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입장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을 토의 전에 나누어 적절하게 모둠 속에 섞여지도록 모듬을 짠다. 그런 후 실제 토의활동을 통해 자연을 어떻게 개개인의 삶과 연결지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51) 「KBS 인간극장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2005년 1월 3일~7일 방영.

동영상 자료 홈페이지 주소

http://www.kbs.co.kr/2tv/sisa/human/vod/1339420_1278.html

※ 다음 다큐멘터리를 보고 歸自然 현상에 대해 토의를 해 봅시다.

아래의 자료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 의도입니다. (참고로 읽어봅시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 부부가 연고도 없는 산골로 들어갔다. 서울대 출신 박범준(32)씨와 카이스트 출신 아내 장길연(30)씨.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벤처회사를 운영하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생활은 그들에게 숨 돌릴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성공이란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진정 살면서 느껴야 할 행복이나 만족은 점점 딴 세상 얘기처럼 들렸다.

결국 부부는 모든 것을 접고 산골행을 결심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시작하게 된 산촌생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시작하게 된 산촌생활. 그러나 산골생활은 생각만큼 녹녹치 않았다. 더구나 유난히 춥고 길다는 산골의 겨울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명문대라는 이름표를 뒤로하고 ‘부유하게’가 아닌 ‘행복하게’ 살기를 선택한 부부. 그들의 첫 번째 겨울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1.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주인공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

2.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모둠원들끼리 토의 해보고, 그 내용을 적어봅시다.

이들의 삶에 찬성하는 입장 (긍정적인 면)	이들의 삶에 반대하는 입장 (부정적인 면)

3.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적어봅시다.

⇒

4. 기존의 나의 생각과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봅시다.

⇒

학습자는 토의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자연 속에서의 삶에 긍정적인 입장은 많이 알고 잘 얘기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도움을 돌며 지도해 줄 수도 있겠다.

이 삶의 부정적인 입장의 근거로는 첫째, 현재 사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좋은 시선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탈도시화’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이런 생활은 무조건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 둘째,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폐쇄적이며 단절되어 있다. 사회적인 교육과 지식을 다 받은 부부야 괜찮지만, 그 자식은 사회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이 어렵다. 그들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을 이용하고, 책을 써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벗어나 사회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나 의료, 전화, 교통 등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무조건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최고의 삶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는 사고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대의 자연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향유라는 의미에는 농촌에서 자연을 벗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도시에서 자연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임이 전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만 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마다 자연을 돌아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최선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이런 점에서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우리가 여유 있을 때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를 통한 심적 안정을 향유하려면 자연을 소중히 해야 함을 알 수 있겠다. 좀 더 편한 생활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면앙정가>에 나타난 화자도 그 시대에는 도시에서의 삶을 살았다. 조정의 일로 자연 속에서 한가한 여유를 찾지 못했듯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인 것이다. 학습자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중세에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으니 자연 친화적 삶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파괴 여부를 떠나 도시인들의 여유 없는 일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느끼도록 한다.

※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들과 <면앙정가>의 화자의 삶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자연을 내 삶 속에서 향유할 것인지 일기 형식으로 써 보자.

○월 ○일

제목 :

이러한 학습들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자신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향유할 것인지 위와 같은 일기의 형식으로 써 보도록 한다. 이 글을 쓸 때에는 멀리 보아 평생을 통해 자연을 자신의 삶 속에 들여오는 시각과 지금의 처지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연을 자신의 삶 속에 접목시키는 방법 등 여러 접근 방식이 있음을 알려준다. 결론식으로 그 동안 느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쓰는 활동은 학습자들의 내면화 과정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상으로 ‘태도론적 측면’으로 <면양정가>를 교수-학습 할 때, 우리 민족 고유의 자연관이 사회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며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예찬을 강조한 <면양정가> 화자와 달리 자연을 지루하고 권태로운 것으로 본 이상의 수필과 비교하며 각자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글로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학교 교육에서 자연의 예찬만을 주입식으로 강조하였는데, 자연 속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 주어 자연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대 문명에 회의를 느끼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사는 부부의 삶을 영상 매체로 보여주며 이 삶의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누어 소집단 토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 토의는 학습자들에게 현대 삶의 한 방식으로 떠오르는 歸自然의 상황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아 앞으로 자연을 어떻게 향유하며 살아가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강호가사 <면앙정가>를 고등학교 국어교육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관점과 문학 교육의 주안점을 토대로 ‘작품론적 측면’, ‘문화론적 측면’, ‘태도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교수-학습의 실재를 얘기해보았다.

그동안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면앙정가>의 교육이 어구 풀이나 화자의 자연관에 대한 단순한 학습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과 학습자에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의 확장·전이의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면앙정가> 교육에 대한 학습 목표는 ‘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수용·창작한다.’, ‘조선 전기 문학의 갈래와 그 양상을 이해한다.’, ‘한글 창제와 한국문학의 발전 관계를 이해한다.’와 같이 강호가사로서의 작품 자체의 가치보다는 조선 전기 문학의 하위 갈래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현대 학습자에게 강호가사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자연 중에서도 우리 문화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 해 두고 <면앙정가>의 실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문학교과서에서 ‘강호가사’를 찾아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내용을 살펴보았다. ‘강호가사’의 범주에 드는 <상춘곡>, <면앙정가>, <누항사> 세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작품론·문화론적 측면’의 학습은 잘 나타나나 학습자에게 감동을 주고 경험의 확장을 통해 내면화시키는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고전문학 교육은, 특히 강호가사 교육은 아직 제대로 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양한 텍스

트를 활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면앙정가>를 대상작품으로 선정해 보았다. 작품 선정의 근거로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부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 자연을 인간의 궁극적인 귀의처로 본 점, 자연을 통해 화자의 호탕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을 들었다.

III장에서는 강호가사 <면앙정가>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실체를 연구해보았다. <면앙정가> 교수-학습의 방향을 1·2·3절로 나누어 ‘작품론적 측면’, ‘문화론적 측면’, ‘태도론적 측면’의 셋으로 분류해보았다. 이 분류는 제 7차 교육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드러난 고등학교 국어 교육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관점과 문학 교육의 주안점을 근거로 하였다.

‘작품론적 측면’에서는 대상 작품이 고전 가사장르이므로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 이해와 4·4조의 리듬과 4음보의 율격, 대구, 압운 등으로 이루어진 음악성, 다양한 심상의 활용과 묘사 등의 형상성을 학습 요소로 하여 교사 중심 활동, 학습자 중심 활동을 적절히 병행하며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해 보았다. 학습자 중심 활동의 경우 매체 속에 드러난 가사의 특성과 현대 가요와 비슷한 가사의 특성 등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모작·창작 해보는 활동을 통해 고전 가사의 특징을 오늘날 문화의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문화론적 측면’에서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 모듈별로 자료를 조사해 오는 방법을 택했다. 송순의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작품 창작 동기, 면앙정의 의미 등 작품의 콘텍스트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면앙정가>속에 드러난 이면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송순이 어떤 자연관을 지녔는지, 또 그 자연관은 조선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조선후기 강호가사인 <누항사>에 드러난 자연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학습함으로써 그 시

대 사회·문화 전반을 알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 시대 누정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면앙정가>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이 남아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효과를 꾀하였다. 누정 문화에 대한 이해는 소집단으로 누정 여행 계획을 짜 간접적인 여행 효과와 누정을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여 후에 제대로 된 누정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태도론적 측면’에서는 <면앙정가>를 토대로 한 학습자의 자연관 내면화 형성에 주안을 두었다. 고전 작품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화를 꾀하는 경우 현대문학의 수용과 계승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자연’을 현대시 속에서 찾아 <면앙정가>와 비교하는 학습을 기초로 하였다. 그래서 1930년대의 시로 신석정의 <어머니, 당신은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를, 1960년대의 시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비교 텍스트로 선정하여 <면앙정가> 속의 자연과 공통점·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연을 순수의 공간, 여유의 공간,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같으나 시대에 따라 사회와 개인이 처한 현실에 따라 1930년대는 자연이 이상향으로서만 존재하기도 하고, 1960년대와 같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파괴되는 공간, 자연의 파괴는 인간성의 파괴를 의미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한다. <면앙정가>의 자연은 1930년대와 1960년대의 자연 공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유토피아의 세계, 이상적 공간으로 인간의 순수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져오기도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학 특성이 끊어지지 않고 시대를 따라 약간의 변형이 보이지만 소설이나 시 등의 문학 작품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런 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현대에는 어떻게 그 흐름을 변형시켜 보아야할지 영상 매체를 통해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 학습은 자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모둠원들과 나누어 보게 하는 토의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을 알

아보고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문학의 학습 목표를 강호가사 <면양정가>를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물론, 전체 내용을 한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은 어렵지만 교사의 재량에 따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학습을 골라서 시키거나 세 가지 측면의 활동을 섞어서 관련되는 학습을 같이 시킨다면 본고에서 다른 활동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유능한 교사는 교재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동일한 작품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그 해석의 원리나 절차가 타당하다면 학생의 반응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학 교육이 수업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 밖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일이 교사들에게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上』, 교육인적 자원부, 2001.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대한 교과서, 2001.

강황구의 4인, 「고등학교 문학 下 교사용 지도서」, 상문 출판사, 2002.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下 교과서」, 상문 출판사, 2003.

구인환외 5인, 「고등학교 문학 下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上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上·下 교과서」, 교학사, 2002.

김대행외 2인, 「고등학교 문학 上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上 교과서」, 교학사, 2002.

김병국의 4인, 「고등학교 문학 下 교사용 지도서」, 케이스,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下 교과서」, 케이스, 2002.

김창원의 3인, 「고등학교 문학 下 교사용 지도서」, 민중서림,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下 교과서」, 민중서림, 2002.

박경신의 3인, 「고등학교 문학 下 교사용 지도서」, 금성 출판사,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下 교과서」, 금성 출판사, 2002.

우한용외 5인, 「고등학교 문학 下 교사용 지도서」, 두산 출판사,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下 교과서」, 두산 출판사, 2002.

홍신선의 2인, 「고등학교 문학 上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03.

_____ , 「고등학교 문학 上 교과서」, 천재교육, 2002.

2. 학위 논문

- 경환철, 「면양정 시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3.
- 고광수, 「고전문학 교육의 한 방향-강호가사의 교육적 의미」, 『문학교육학 제10호』, 역락, 2002.
- 고연정, 「고전시가를 이용한 현대시 교육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03.
- 곽성기, 「호남지방 누정의 교육사적 접근」, 『교육연구 16』, 원광대학교 교육 문제연구소, 1997.
- 곽영란, 「송순 국문시가의 소재와 표현법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0.
- 권정은, 「자연시조의 구성공간과 지향의식」,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4.
- 김경희, 「면양정의 의미 연구」,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김경희,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작품의 생태학적 성격 분석」,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5.
- 김도남, 「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국어교육적 함의」, 『한국어문교육』 9, 한국 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0.
- 김명준, 「16·17세기 강호가사의 변형 양상」, 『어문논집』 41, 안암 어문학 회, 2000.
- 김정석, 「17세기 은일가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39쪽.
- 김종열, 「강호가도의 개념」, 『도남학보』 12, 도남학회, 1994.
- 김창원, 「16세기 사림의 강호시가 연구 :강호의 미적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1998.
- 김풍기, 「자연시가류의 역사적 층위와 학습목표의 설정」, 『어문학보』 20집,

- 강원대 국어교육학과, 1997.
- 노인숙, 「송순시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1.
- 문은정, 「송순의 면양정가의 내면세계와 성격연구」, 『인천어문학』 10, 인천 대학교, 1994.
- 박영주, 「강호가사에 형상화된 산수풍경과 생활풍정」, 『한국시가연구』 10집, 한국시가학회, 2001.
- 박준규, 「光州·全南地域의 樓亭調査와 鄭澈의 樓亭題詠」 『어문논총』 제3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 박춘우, 「〈어부사시사〉의 교육방안 연구」, 『우리말글』 30호, 2004.
-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윤덕진, 「강호가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8.
- 윤지관, 「‘녹색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생태학적 상상력의 올바른 발현을 위하여」, 『문학사상 321』, 문학사상사, 1999.
- 이승원, 「녹색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학 교육의 방향」, 이승원, 『문학과 교육』 12, 문학과 교육연구회, 2000.
- 이영석, 「독일의 환경교육과 녹색문학」, 『문학과 교육』 12, 문학과 교육연구회, 2000.
-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80.
- 이종민, 「호남가단의 누정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1993.
- 임주탁, 「강호가사의 내면세계와 역사적 전개과정」, 『논문집』 31, 공군사관학교, 1992.
- 정재호. 「江湖歌辭小考」. 『어문논집』 17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76,

- 최상은, 「면앙정 송순 시가의 미의식」, 『성대문학』 28,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 최진원, 『강호가도와 산수시·전원시』, 『도남학보』 14, 도남학회, 1994.
- 최진원, 「강호가도연구」, 『국문학과 자연』, 성대 출판부, 1981.
-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4.
- 탁동식, 「상호관련시 텍스트 읽기를 통한 시적 체험의 확대방안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0.
- 한귀은, 「고전시가교육의 상호텍스트적 네트워크」, 『어문교육논집』 16,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98.
- 허남춘,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과제」, 『백록어문 제17집』, 백록어문학회, 2001.

3. 단행본

- 김기영, 『자연시가와 시가교육』, 이회문화사, 2002.
- 김대행, 「정서의 본질과 구조」,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5.
- 김병국, 「강호가도와 전원문학」,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5.
-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시는 왜 가르치는가>, 고려대 출판부, 1998
-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 송순에서 신희까지』, 보고사, 2004.
-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 _____,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81,
- 민병수,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 태학사, 2001.
- 박영목 외 2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3.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 창작과 비평사, 2002,
- 이건청, 『한국 전원시 연구』, 문학 세계사, 1986.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 이승남, 『사대부가사의 갈등표출연구』, 역락, 2003.
- 장선희·정경운, 『호남문학기행』, 박이정, 2000.
-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 정재호, 『한국 가사문학의 이해』, 고대 출판부, 1998.
- 조운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년 증보판.
- 최현섭 외 6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3.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Plan of Gangho Gasa <Myeonang Jeongga>

Jo, A-La

Major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d Gangho Gasa <Myeonang Jeongga> which appears the most on textbooks followed by Gihaeng Gasa which was the most often discussed work in the current school Gasa literary education. 'Gangho Gasa' shows the literati's 'view of nature' in Chosun Dynasty in detail along with 'Gangho Shijo' and at the point that the moderns' interest in nature increases, it is a good literary work that can make learners think the meaning of nature by using 'Gangho Gasa.'

Among various 'Gangho Gasa' works, <Myeonang Jeongga> was selected as the subject work of this thes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meaning. the educational meaning of 'Gangho Gasa' could be examined focusing the learner-oriented activity of 3 aspects namely, the 'aspect of works', 'cultural aspect' and 'aspect of attitude' based on the desirable viewpoint expected to Korean education of high school and the point of literary education.

Poetry is a genre composed by beautiful utilization of language so that

the 'aspect of works' was treated through the whole language education shown to the work. As for the concrete contents, it is composed of learning contents to understand text languages and meanings and how the musical factors such as rhythm and meter, description and metaphor were shown.

In addition, different from modern literature, in order to understand classical literature the author's life and the cultures spread to the society related the work and social situations of the age in which the work was written should be learned. In particular, <Myeonang Jeongga> shows the speaker's admiration of nature in the whole work and this view of nature was part of the culture of this age. Accordingly, including the speaker's view of nature the 'cultural aspect' was also treated.

At last, the 'aspect of attitude' focused the internalization formation of the learner's view of nature based on <Myeonang Jeongga>. In case that learner's internalization is planned through classical works, the modern value and meaning should be searched so that it was based on the comparative learning with <Myeonang Jeongga> by finding our national 'nature' shown differently from the flow of the ages in poetry. Therefore,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t points with nature in <Myeonang Jeongga> were examined by selecting <Mother, do you know the country in the distance?> as a poem by Sin Seok-jeong in the 1930's and <Pigeons in Seongbuk-dong> as a poem in the 1960's for the comparative texts. As a result, other meanings were transmitted by age compared to <Myeonang Jeongga> in the point that nature exists only as

Utopia in the 1930's and does as space destructed by the human necessity. Like this, the nature of <Myeonang Jeongga> has different meanings from the natural spaces in the 1930's and 1960's but the common point that it is transmitted to nature as the world of Utopia and ideal space where human purity is sought can be found. This seems to show a little transformation of our national literary characteristics with the flow of the ages that have been transmitted without interruption but shows that it has been continuously handed down to literary works such as novels or poetries. Based on this recognition, discussion and debate on the way of life in nature can be made by using data dealing with interest in and life of nature occurring in recent. In addition, learning about Gangho Gasa <Myeonang Jeongga> can be finished by understanding knowledge acquired from the activity and transferring it to the creative activity that writes his own view of natur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goal of literary education is achieved through <Myeonang Jeongga> class if the attitud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iterary culture is acquired after acquiring attitude to understand basic knowledge on <Myeonang Jeongga> and raise literary sensitivity by performing acceptance of the work and creative activity and achieve self-realization,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Myeonang Jeongga> and integrate its value to his own life through these 3 aspects.